



## 2018년도 총선거 완료, 학생대표 선출돼

지난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다. 지난 11월 3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에 걸쳐 후보자 선거 유세가 이루어졌다. 한편, 23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낙산관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모든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투표는 ▲미래관 앞

▲탐구관 ▲상상관 ▲지선관 옆 총 4개 투표지에서 27·28일 양일간 실시됐다. 개표는 투표가 마감된 오후 11시부터 창의관 소강당에서 진행됐다. 제33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총 재적인원 5,763명 중 투

표인수 3,071명(53.2%), 찬성 2,285명(74.4%), 반대 455명(14.8%), 무효 331명(10.7%)으로 '참' 선거운동본부의 송진기(기계 3) 후보가 정학생회장, 심원준(IT응용 3) 후보가 부학생회장에 당선됐다.

한편,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는 앞선 21일에 꾸려졌고, IT공과대학, 디자인대학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내년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 2면에 계속

정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지면안내

보도 제33대 총학, 송진기, 심원준 후보 당선 **02**



사회 무한도전은 옛말, 민낯 드러낸 청년창업 **03**

사람나 정한나 이모티콘 디자이너를 만나 **04**

한성문학과 소설 작가 (워너비) 시 가작 (오랜 뒤의 발신인으로부터) (보랏빛 합창) **05~07**

학술 인공지능... 인간의 경쟁자이거나 조력자이거나 **08**

오피니언 의화정, 삼학송 등 **09**

여행기획 김 기자와 김 기자의 랑진잼 풀뽀 슈퍼내추럴잼 여행 **10~11**



문화 동심의 세계로 풍당 '키덜트' **12**

## 수정을 거듭하는 비교과 포인트 제도, 안정화 이루나

지난 11월, 비교과 포인트 제도의 보완책이 도입됐다. 2016년부터 교육과정의 일부로 적용돼온 비교과 포인트 제도는 지난 학기에 개편돼 새롭게 시행된 데 이어 현재까지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비교과 포인트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편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학교 교육혁신지원팀은 관련 자료를 통해 "2016년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막 시행된 시기라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유연하게 운영했으나, 이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신청에 관한 행정시스템 변화가 이뤄졌다. 기존에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과 참여 예상 인원' 등 최소한의 항목만 기입해 약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려면 교육혁신지원팀에서 새롭게 제작한 운영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여부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의 양도 교육혁신지원팀에서 지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가 심의한 후 확정한다. 개정된 운영계획서의 '운영 대상'

부분에는 '대상 학과'가 하위 항목으로 추가됐다. 또한 모집기간과 운영기간 및 시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주차별 운영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신청기간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이번 학기 개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4일까지였고, 추가 개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0일까지였다. 반면, 내년 1학기부터는 개설 신청 기간을 4월로 지정해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의 비교과 프로그램 제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별도의 결과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학기부터 모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주체는 교육혁신원에서 개발한 만족도조사 결과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편안 중 이 사항만 즉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권유경(교육혁신지원팀) 담당자는 "이번 학기는 시범적으로 교육성과관리센터에서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단계까지만 수행할 예정"이라며

| 학년도    | 2017   | 학기   | <input type="checkbox"/> 1학기 <input type="checkbox"/> 여름학기 <input type="checkbox"/> 겨울학기 | 운영부서       | 주관부서<br>개부서 |
|--------|--|--|--|------------|-------------|
| 프로그램명  | <input type="checkbox"/> 특강 워크숍 <input type="checkbox"/> 소모임 연동형 <input type="checkbox"/> 공모전 대회 <input type="checkbox"/> 상담 봉사<br><input type="checkbox"/> 현장체험활동 <input type="checkbox"/> 봉사 <input type="checkbox"/> 봉사 <input type="checkbox"/> 여학자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핵심역량   | - 참여역량 % <input type="checkbox"/> 자기관리능력 %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소통능력 %<br>- 융합능력 % <input type="checkbox"/> 대인관계능력 %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시민의식 %<br>※ 6대 역량 비율의 총합은 100이 되어야 함 ※ 역량에 대한 정의는 아래 [첨부]를 참조  |  |  |            |             |
| 운영목적   | ※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 여부 심의시 검토 사항이므로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  |            |             |
| 운영대상   | <input type="checkbox"/> 계한 없음 (대상 학과) ( )<br><input type="checkbox"/> 계한 있음   | 운영 학년<br><input type="checkbox"/> 1학년 <input type="checkbox"/> 2학년<br><input type="checkbox"/> 3학년 <input type="checkbox"/> 4학년<br>(선택적에 가능) |  |            |             |
| 운영기간   | (예) 2017.09.01. ~ 2017.09.10.  | (예) 2017.09.11. ~ 2017.09.11.  | 총 운영시간<br>_시간  |            |             |
| 지급 포인트 | ※ 비교과 포인트 신청기준 참고<br>학기당 최대 포인트  | 이수자 배제   | ※ 장학금, 동아리, 포상, 봉사시간 등 기타 다른 장학금과 병행 배제시 제외됨 (표시해주시요.)                                   |            |             |
| 담당자 정보 | *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내선 전화 및 이메일)  |  |  |            |             |
| 예산 재원  | (예) 부서 예산, 학교 생활실업금, 외부 기관 후원 등  | 집행 비목  | (예) 감사비,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등   | 운영 예산 (만원) | (만원)        |

▲ 개편안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적용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아직까지는 비교과 포인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또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추후 학생 참여와 성과를 고려해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이 비교과 포인트를 신청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외 활동을 한 뒤 비교과 포인트를 신청하려면 학생들이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바뀐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시회 관람 후 티켓에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적어 제출하면 됐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전시회를 관람한 소감문, 전시회 내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개편은 11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9·10월에 교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지난 학기 평가기준대로 비교과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교육혁신원은 과거 (한성대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학기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비교과 포인트 장학금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진행한 인터뷰에 대해 권 담당자는 "현재 관련 위원회와 행정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향후 있을 비교과 포인트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유은강 기자 dbdmskd73@naver.com

인명요보장·상시모집  
hansungnews@gmail.com

# 제보모집

### 기자사령

임정기자 윤희승(행정 2)  
장동화(행정 1)  
박아름(매선 1)  
박금정(전자 2)

# 2018년도 학내 총 선거 실시

## 제33대 총학, 송진기, 심원준 후보 당선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제33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5,763명 중 3,071명(53.2%)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2,285표(74.4%), 반대 455표(14.81%), 무효 331표(10.77%)로 '참' 선거운동본부의 송진기(기계 3), 심원준(IT응용 3) 후보가 당선됐다.



송 당선자는 “많은 학우분들이 뽑아주신 한 표, 한 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통을 중시하는 총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공약은 ▲학생 기본권 보장 ▲트랙제 역차별 문제 해소 ▲매월 정기 학생간담회 개최 ▲학생식당 어플 시스템 적용 ▲휴연구역 지정 및 휴연부스 설치다. 학생 기본권 보장에 대해 송진기 총학생회장은 “장바구니 신청 3일 전까지 강의계획서 및 수강신청 책자의 업데이트를 완료하겠다. 교수협

장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제35대 학복위, '보기' 선본 당선

총학생회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제35대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5,763명 중 3,071명(53.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561표(83.39%), 반대 364표(11.85%), 무효 146표(4.75%)로 '보기' 선거운동본부의 전인호(경영 3), 윤여경(화학 3) 후보가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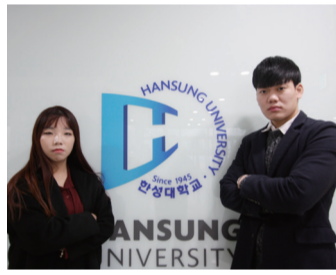


전인호 학복위 위원장 당선자는 “많은 학우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 학복위의 본분을 충실히 해서 학우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들의 공약은 ▲대외활동 및 학교행사 달력화 ▲중고책 거래 편의성 증대 ▲셔틀버스 배차간격 일정화 ▲대여사업 확대 ▲과거 사업 복구다. 전 당선자는 공약에 대해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셔틀버스의 출발·도착 시간을 모른다. 15~20분 단위로

장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제34대 총대 선거, '세움' 선본 당선

지난 11월 29일 개표 결과, 찬성 62표(81.57%), 반대 8표(10.52%), 무효 6표(7.89%)로 '세움' 선거운동본부의 박성우(전자 3) 총대부의장 후보와 이은미(IT응용 2) 총대부의장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박성우 총대부의장 당선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 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 총대부의장 당선자는 “일 년 동안 총학생회를 확실히 견제하는 총대위원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주요 공약은 ▲투명한 감사 진행 ▲감사국장 및 상임위원 감사 OT 추진 ▲대의원총회 회의록 공개 ▲대의원 역량 강화 및 해택 증진이다. 꼭 이루고 싶은 공약으로 박성우 총대부의장 당선자는 ‘감사국장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제33대 인문예술대 선거, '라운' 선본 당선

이번에 치러진 제33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총 재적인원 1,287명 중 711명(55.2%)이 투표에 참가했다. 개표 결과 찬성 545표(76.65%), 반대 134표(18.84%), 무효 32표(4.5%)로 '라운' 선거운동본부의 박찬영(역사문화 3), 이혜진(영어영문 2) 후보가 당선됐다. 이혜진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우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찬성표가 곧 우리에게 거는 기대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라운은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학생회로 인해서 더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끔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혜진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회화과와 사전에 대화를 나눈 바 있다. 단과대학 단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인문대와 예술대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MT도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용과와 회화과 학생들이 단과대학이 사라진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학생회 임원도 인문예술대 모든 학과에서 고르게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제22대 사과대 선거, '너나들이' 선본 당선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미래관 앞과 상상관 등에서 제22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 선거가 진행됐다. 지난 11월 29일 개표 결과, 찬성 640표(81.84%), 반대 114표(14.57%), 무효 28표(3.58%)로 '너나들이' 선거운동본부의 정호재(무역 3) 학생회장 후보, 한혜지(행정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정호재 학생회장 당선자는 “학생들과 항상 소통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으며, 한혜지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공약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은 ▲택배 대신 받아주기 서비스 실시 ▲학기 초 전공서적 플리마켓 운영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트랙 설명 ▲간식 사업과 공책 배부 병행 ▲기존 사업 보안 및 지속이다. 공약 중 하나인 '택배 대신 받아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제2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 선출돼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2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 선거가 상상관에서 진행됐다. 21일 개표 결과, 찬성 165표(92.6%), 반대 11표(6.1%), 무효 2표(1.1%)로 김도희(상상력 1) 학생회장 후보와 장예준(상상력 1) 부학생회장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김도희 학생회장 당선자는 “투표해주시는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세창(산공 4) 전 학생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은 ▲트랙 전담 부서 창설 ▲상상력 소모임 추진 ▲엘로우 아이디어카카오 플러스 계정을 통한 공지 및 설문 실시 ▲정기적인 선후배 모임 형성이다. ‘트랙 전담 부서 창설’은 신입생들이 트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트랙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장예준 부학생회장 당선자는

“내년에 인문대, 사과대 등 단과대별로 부서를 편성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조직도는 추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상력 소모임 추진에 대해서는 “상상력 소모임은 다른 학과에 있는 학술 소모임, 집무 등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정기적인 선후배 모임은 현재 학과별로 개최하는 개강파티, 학과인의 밤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한성 #타임라인

### 제32회 한성문학상 공모 성료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제32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가 이루어졌다. 이 공모전은 본교 재학생들의 문학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주제에 제한 없이 단편소설 부문과 시 부문의 순수창작물을 모집했다.

이번에는 당선작 없이 소설 부문에서 각각 1편, 시 부문에서 각각 2편이 선정됐다. 소설 부문에서는 이정민(한국어문 3) 학생의 <위너비>가, 시 부문에서는 염민경(국문 4) 학생의 <오랜 뒤의 발신인으로부터>, 김예영(인문 1) 학생의 <보랏빛 함정>이 각각으로 뽑혔다. 소설 부문 각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 원과 상장, 시 부문 각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만 원과 상장을 시상할 예정이다.

소설 부문에서 가작을 수상한 이정민 학생은 “가작을 수상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선작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치밀하게 글을 써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32회 한성문학상 수상작과 수상소감, 심사평은 이번 호 <한성대신문> 5면부터 7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 제1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 열려

지난 11월 28일, 본교 총장실에서 제1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미니멀 라이프’, ‘젠더폭력’ 등이었다. ‘꽃눈’ 외 5팀이 본선에 진출해 ▲최우수 ‘꽃눈’ ▲우수 ‘김병헌’ ▲우수 ‘아미빅스’ ▲장려 ‘모범커피’ ▲장려 ‘박남주’ ▲장려 ‘미니멀 트리오’ 등이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최우수 상금 80만 원 및 비교과 포인트 100점 ▲우수 상금 30만 원 및 비교과 포인트 80점 ▲장려 상금 10만 원 및 비교과 포인트 60점이 지급되며, 대회참가자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40점이, 방청한 학생들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5점이 부여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꽃눈’팀 박수현(국문 2) 학생은 “지난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수상을 목표로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최우수상을 받아서 당황스럽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같은 팀인 박효민(국문 2) 학생도 “시합기간이 겹쳐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예선 때 긴장한 탓에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본선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라며 수상의 기쁨을 드러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제4회 상상력 토크 개최

지난 11월 30일, 상상력인재학부가 미래관 DLC에서 ‘제4회 상상력 토크’를 개최했다. 상상력 토크는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이 대학 생활 탐구, 전공 탐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상상력인재학부가 마련한 특강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개최된 제4회 상상력 토크는 지난 1학기부터 실시해온 상상력 토크 제1·2·3회의 연장이다. 앞선 토크는 각각 ▲상상력 교육의 모순과 가능성 ▲경쟁력 있는 청년이 되려면 ▲현실과 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주제로, 시스템 성능 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 ‘엑셈’의 박재호 이사의 특강으로 꾸며졌다. 박 이사는 ‘지식의 반감기’,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되려면’, ‘프로그래밍 학습이 어려운 이유’ 순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 앞서 서은경(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은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변화하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동정란

**정성훈(기계전자공학부) 교수**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승호 학생과 연구한 ‘딥러닝 방식 위조지문 검출을 위한 GAN을 통한 위조데이터 생성, 논문과 김호중 학생과 연구한 ‘셀 우주 상에서 인공개체의 주화성 진화, 논문을 발표했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10월 16일 서울시 7급, 9급 공무원 채용 면접심사위원, 10월 31일 한국 남부발전 2직급 승진 역량평가위원, 11월 28일 관세청 9급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면접위원으로 각각 위촉됐다.

**진병욱(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진 교수는 세계 4대 우수디자인선정제인 일본의 ‘Good Design Award(G마크)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어 2017년 6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 무한도전은 옛말, 민낯 드러낸 청년 창업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업생멸행정통계'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자가 설립한 기업이 1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53.4%, 2년 이상 생존한 비율은 36%였다. 5년 이상 자영업을 유지하는 비율은 15.9%에 그쳤다. 반면, 전체 신생기업은 1년 이상 생존한 경우가 62.4%, 2년 이상은 47.5%, 5년 이상은 27.3%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업의 존속기간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10%가량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청년기업 10곳 중 4곳은 1년 이내에, 5-6곳은 2년 이내에 폐업, 전직 등으로 문을 닫는 상황인 것이다. 청년들은 왜 폐업의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창업을 하는 것일까? 통계청의 '2016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창업동기를 묻는 문항에서 82%가 '창업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를 보면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선택지가 없어 창업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 '혁신'보다 '생계'

창업형태는 어떠한가?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30대 미만 창업자의 63.3%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다. 최근 창업 풍토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2017년 8월 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년 창업 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으로 사업자들

은 총 125,19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30대 미만 창업자 수가 227,461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55%가 넘는 수치다.

보통, 창업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바로 '생계형 창업'과 '혁신형 창업'이다. 여기서 음식·숙박업이 생계형 창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생계형 창업은 특별한 기술이나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취업난에 부딪혀 창업을 선택했지만, 청년들은 가진 기술이나 자본이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 어려움에 고개 숙이는 청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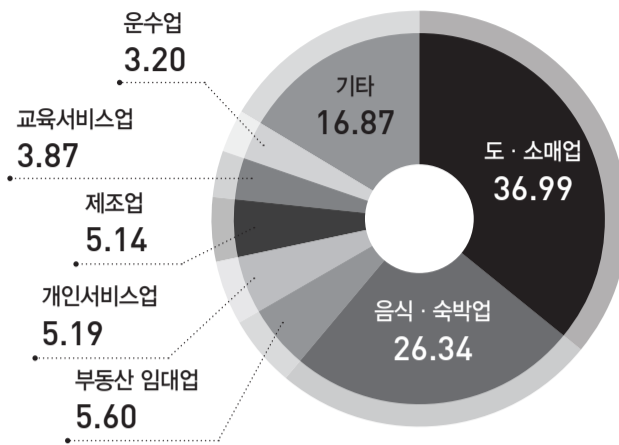
청년사업자들이 막상 생계형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창업진흥원이 진행한 '2016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 장애요인으로 '창업자금 확보'를 1위(85.4%)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창업 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26.6%), 창업부터 성공하기까지 경제활동 문제(19.2%) 순이었다. 실제로, 청년지원협회의 고성호 회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자금이 부족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선했던 사업 아이템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영노하우가 부족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창업 지원정책은 눈먼 정책?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서 자금지원

### 창업 신생기업 수

(단위: %)



출처: 통계청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94.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창업지원을 자금지원정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지원이 청년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6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지원정책에 지원한 경험이 없는 창업주가 72.8%였고, 그중 지원사업 미신청 이유에 대해 '창업지원사업 시행 정보부족'이라고 답변한 청년이 41.7%에 이르렀다. 정부가 자금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에도 정작 청년들은 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고 회장은 "청년들은 결국, 사업적 경험과 내공이 없기 때문에 함께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멘토링과 투자 유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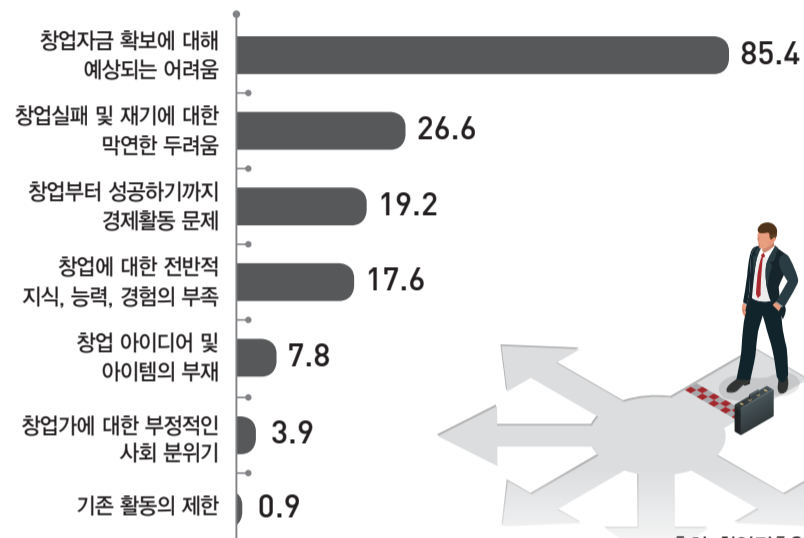
사업자에게 딱 맞게끔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원은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을 하는 것은 청년들의 몫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018년도 '창업·벤처' 분야에 올해보다 9.8% 증가한 3,922억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예정인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는 최근까지 계속된 '청년창업잔혹사'가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 창업 장애요인(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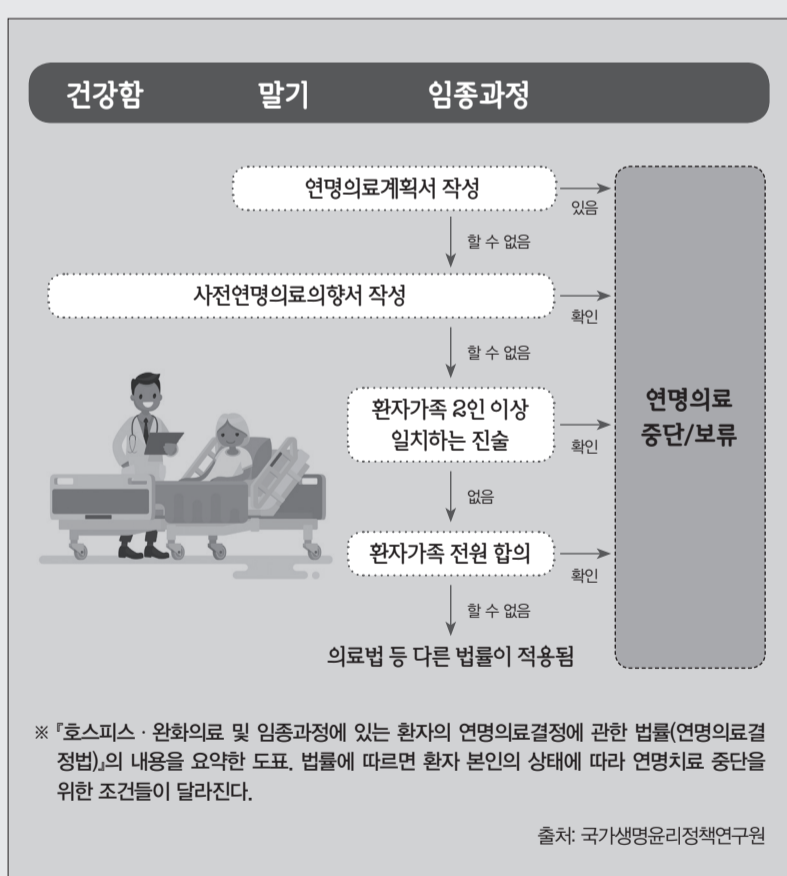
출처: 창업진흥원

## 품위 있는 죽음, 합법이 되다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시범사업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운영되고 있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 존엄사를 다룬 영화 <미 비포 유(2016)>가 지난 10월 2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순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존엄사란 환자가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죽는 것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를 국내 최초로 인정한 법률이다. 법률에 따르면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밝혔을 경우, 의료기관은 그에게 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다. 환자는 사전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의사와 함께 구체적인 연명치료 계획을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로 이러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은 존엄사를 시행하는 대상을 말기 암,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로 한정되고, 연명의료를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2009년 발생한 김 할머니 사건이다. 당시 김 할머니는 심장마비로 식물인간 상태였는데, 자녀들이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5월, 의료진에게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존엄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고, 2015년 7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명의료결정법을 발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존엄사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연명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사전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2,197건이며,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한 건수는 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보건부 차관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잡음들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보험계를 보면, 존엄사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논쟁을 빚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환자의 가족들이 '부모가 아플 때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심의를 통해 복지부에 수정권고안을 제출했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초 연명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에 있는 등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조만간 지속될 전망이다.

윤희승 기자

yoohing@gmail.com

###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초·중·고등학교 때는 도로나 대중교통 등·하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통학거리가 멀어진다. 특히, 지방에서 상경하는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대중교통으로 통학을 할 수 없거나, 시간이 많이 소모돼 통학이 힘든 일부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집을 구해 자취를 하곤 한다. 당장 우리학교만 해도 자취를 하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를 지불하고 원룸 등에서 거주한다. 여기에서 보증금이란, 세입자가 향후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 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위험부담금이다. 이 돈은 말 그대로 '위험부담금'이므로 별 다른 이유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끝날 때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금은 보통 천만 원이 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데 간혹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을까?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전한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환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입자도 그 때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는 보증금 지급을 연기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이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계약 당시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반납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해당 집주인과 계약했던 다른 세입자들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직접 법원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영생 변호사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환을 미룬 대가로 집주인에게 별도의 이자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고 자취방을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적잖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학생이라고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집주인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보증금과 추가적인 권리들을 되찾도록 하자.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졸랭 귀여운 조랭이떡'

정한나 이모티콘 디자이너를 만나다

카카오프렌즈, 오버액션 토끼, 에비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이들은 모두 대중적인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모티콘이기 때문이다. 메신저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모티콘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엽고 재미있는 이모티콘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평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런 이모티콘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이모티콘 디자이너 정한나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 그녀의 손에서 태어난 이모티콘 캐릭터들

정 씨는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녀는 학업과 이모티콘 디자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정 씨는 그동안 카카오톡에 ▲왓카탄한 오목이의 일상 ▲오목이와 꾸꾸 ▲안녕! 나는 꾸꾸 ▲불살 똥똥 꾸꾸의 하루 ▲개 강한 쫘물이 ▲집사들이 내가 왔다옹 ▲졸랭 귀여운 조랭이떡, 네이버에 ▲불살 똥똥이 꾸꾸 또 왔어옹! ▲오목이 꾸꾸 함께해요, 비트윈에 ▲망고 체리 사랑해 등의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캐릭터 오목이는 왓카탄한 소녀다. 쫘물은 오목이의 여동생으로 이제 막 개강했지만 종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새내기다. 보기는 달리 힘이 세다는 것이 특징이다. 꾸꾸는 오목이가 키우는 강아지인데, 불살이 통통하고 애교가 많다. 망고와 체리는 꾸꾸의 친구들이다. 둘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 사이다. 랜선냥(집사들이 내가 왔다옹)의 고양이들은 '랜선집사'를 구하고 있는 고양이들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조랭이떡에서는 모티브를 얻었다. 떡볶이에서 탈출했다는 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사실 정 씨의 이모티콘에는 그녀의 일상이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정오목'은 그녀의 학창시절 별명이다. 또, 오목이에게 여동생 '쫘물'이 있다. 심지어 정 씨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역시 '꾸꾸'다.

하지만 그녀는 "오목이는 나 자신을 바탕으로 그린 캐릭터가 아니다. 쫘물도 여동생을 참고한 부분은 있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꾸꾸 역시 반려견의 이름에서 따왔다. 그러나 캐릭터 상의 '꾸꾸'가 내 반려견 '꾸꾸'는 아니다"라며 이모티콘의 캐릭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등학생 때 그린 '오목이'가 이모티콘의 시초

정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캐릭터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녀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표, 시간표 등은 물론이고 달력, 메모지, 편지 등 캐릭터를 활용한 문구류까지 직접 제작했다. 정 씨는 "처음 시중에 출시한 이모티콘 역시 고등학생 때 만든 캐릭터 '오목이'다. 그 당시 제작한 작품에 꼭 들어간 캐릭터가 현재 이모티콘 디자이너로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카카오톡에 이모티콘을 출시하게 된 계기도 학창시절 경험의 영향이 컸다. 그녀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언젠가 상품화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다. 우연히 카카오톡 통해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 번 도전해봤는데 심사에서 승인이 됐다"면서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겸손함도 보였다.

## 콘셉트 구상부터 제작까지

정 씨가 이모티콘을 구상하기부터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모티콘 세트의 콘셉트를 구상한다. 그리고 콘셉트에 맞는 24종의 메시지를 구상한다. 구상을 마치면 스케치한 다음 컴퓨터로 작업한다. 이때 톨은 어도비(Adobe)사의 일



▲ '불살똥똥 꾸꾸의 하루'에서 꾸꾸가 앞구르기 하는 이모티콘을 스케치한 것이다.

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일반적인 이모티콘 작업 과정에 '애니화' 단계가 추가된다. 일반 이모티콘은 24개 이모티콘을 스케치한 후 채색만 하면 되는데,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채색 이후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개당 10~24개 정도의 모션을 그려야 한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이 어려웠던 한때, 정 씨는 지난 달에만 두 개의 이모티콘을 출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영감이 들 때 한번에 몰아서 작업한다"고 그 비결을 밝혔다. 이는 정 씨가 학업과 디자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학기에 복학한 그녀는 "학기 중에는 이모티콘 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들다"며 방학에 몰아서 작업을 해놓고, 학기 중에는 틈틈이 수정 작업 정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새로운 이모티콘에 도전한다는 것

정 씨가 내놓은 이모티콘들은 대체로 귀여운 이미지다. 그러나 하나의 이미지만을 고수하다 보면 모든 캐릭터가 비슷해지거나, 사용자에게 식상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그녀는 "요즘 '대충 그린 듯한' 이모티콘이 유행하는 것 같다"면서 "그런 종류의 이모티콘도 제작해보고 싶다. '섬' 없이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것도 디자이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스타일의 이모티콘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본인의 캐릭터가 아닌 다른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제작한 적도 있다. 캐릭터 브랜드 '모모프렌즈'의 의뢰를 받아 '두부가 되기 싫은 콩 모모'라는 이모티콘을 제작해 네이버 그라폴리오 마켓에 출시한 것이다. 그녀는 "다른 캐릭터로는 처음 이모티콘 작업을 했는데, 어려우면서도 재밌었다"면서, 제휴사 측에서도 반응이 좋아 만족스러웠던 작업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 그녀가 '조아 조아 조아'하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디자이너인 정 씨는

과연 어떤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녀는 본인 제작한 이모티콘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 역시 적극 활용한다. 정 씨는 "휴대폰 소녀 밈 시리즈에서 '춤으로 말해요'라는 이모티콘

세트가 있다. 세트 중 캐릭터가 '조아 조아 조아'라고 말하는 이모티콘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또, 웹툰 <늪이 사는 이야기> 작가님이 그린 '은근남의 은근 인생 스티콘'도 애용하는 편"이라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 이모티콘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SNS나 메신저 등 비대면 상황에서는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이모티콘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더 효과적이다. 정 씨는 그녀의 이모티콘이 가진 매력에 대해 "텍스트만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감정을 귀여운 캐릭터가 대신해서 다양한 표정과 동작으로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력"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그녀는 부모님 세대가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 씨는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귀여운 이모티콘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 이모티콘 디자이너로서의 사명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녀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메시지도 있다. 이모티콘 사용자가 '꾸꾸가 귀여워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된다'고 보내 준 메시지가 그것이다.

## 이모티콘에서 더 넓은 시장으로

우리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래의 직업 추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이모티콘 시장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데 비해



▲ 정한나 이모티콘 디자이너가 고등학생 때 '오목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 위에서부터 각각 시간표와 탁상달력이다.

급속도로 성장했다. 앞으로는 이모티콘을 메신저에서만 아니라 더 다양한 플랫폼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모티콘의 미래를 전망했다.

정 씨는 이모티콘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그녀는 네이버 그라폴리오 마켓에 인쇄해서 직접 채색할 수 있는 캘러링 시트와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등록했다. 특히, 정 씨는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서울일러스트레이션 페어 W'에 참가할 예정이다. 그녀는 지난 7월에 참가했던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에서처럼 이번에도 인형, 편지, 손거울, 메모지 등 이모티콘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녀는 "졸업 후에는 캐릭터 굿즈를 출시하고 싶다"면서 굿즈시장 진출에도 의지를 보였다.

## 한성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마디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 누군가도 본인이 만든

캐릭터를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출시해보고 싶을지 모른다. 정 씨는 "요즘 이모티콘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지만, 꼭 잘 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도 이모티콘 출시 심사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어려운 점을 토로하면서 꾸준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인터뷰 끝 무렵, 정 씨는 "이모티콘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곤 한다. 앞으로도 귀엽고 힐링이 되는 이모티콘을 담아내고 싶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녀의 말대로 이제 이모티콘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 씨의 이모티콘이 함축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200% 활용한다면, 비록 대화 상대와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거리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 정한나 이모티콘 디자이너가 합정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캐릭터 스케치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 왼쪽부터 순서대로 '집사들이 내가 왔다옹', '불살똥똥 꾸꾸의 하루', '졸랭 귀여운 조랭이떡' 이모티콘이다.

# 제32회 한성문학상

소설

가작

이정민(한국어문 3)

심사

김동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

시

가작

염민경(국문 4) 김예영(인문 1)

심사

강호정(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시인) 교수

## 소설 부문 가작

### 워너비

4월의 달콤한 빗줄기는 3월의 가뭄을 꿰뚫고, 세상 모든 줄기가 생명력의 물기로 흥건히 적셔진다. 그리하여 들꽃들은 피어난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봄 바람은 그의 달콤한 입김으로 들녘과 작은 숲의 연한 가지들에 한 해를 이겨낼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바람은 못내 숨어있던 마음을 자극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새들은 노랫소리를 실 새 없이 지저귄다. 새벽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 이제 막 지나고 있을 뿐이며, 성자가 수난을 당할 때 제자의 마음을 흔들며 깨운 고고한 종족이 곧 울부짖을 시간이다.

\*  
“네가 아까웠어. 더 좋은 애 만날 거야.”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며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술 마시며 생각했다. 과연 더 좋은 건 뭐지? 그런 애는 언제 만나는 거야? 그가 없어도 이 세상은 돌아간다고. 내가 없어도 역시나 이 세상은 돌아가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니까. 나 같은 건 죽어도 일부 사람들에게 기억될 뿐, 내가 죽어도 경제가 심하게 요동친다든가,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든가, 테러가 일어난다든가. 그럴 일은 없다.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언젠가 사회 속에 묻혀 지금의 일들을 추억으로만 여기고 끝낼 것인지를. 당장 내가 없더라도 이 녀석들 삶에는 지장이 없겠지. 그리고 보면 인생이란 참 시시하다.

\*  
공짜로 생긴 영월 꽃축제 티켓을 얻어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다. 꽃이 저리도 많이 피었는데 나는 향기라고는 바람 냄새밖에 얻을 수 있을까. 심지어 꽃들도 자기들 부모의 돈을 벌 어주려고 억지로 개화한 느낌이었다.

‘영월 꽃축제’라고 쓰여 있는 플랜카드가 들어가는 입구 위에 바람이 펄럭이고 있었다. 각기 색으로 예쁘게 핀 꽃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얼굴을 잔뜩 찡그린 까만 꽃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왜 이리 인간들이 많은 거야!”  
내가 버럭 화를 내자 사방에서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나 보자니까.”  
그는 짜증나는 어조로 내게 화를 내듯이 말했다. 물론 나는 돈을 내지 않았지만 돈을 내고 온 사람은 하나같이 ‘내 돈’이라고 울부짖을 것 같았다. 이젠 마치 고등학교 때 강당에 전교생 모아 놓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재미도 없는 공연을 보여주는 이름만 축체인 축제 같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그래도 이왕 온 김에 그와 사진도 찍고 나 잡아봐라, 같은 유치한 추억거리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그나마 사람이 별로 없는 외진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외진 곳이라 해봤자 간신히 꽃만 만질 수 있을 뿐이었다. 몰래 꽃을 하나 따서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킁킁 소리가 나도록 맡았지만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았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짜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옆 사람의 절반 정도 잘린 티켓을 무심코 보았는데 삼 일간 무료입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 그러니까 나는 혼자 공짜로 들어왔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다. 그래, 어쨌든 인간이 많다 했다. 나는 그 더러운 기분을 안고 두 시간이나 더 있다 집에 왔다. 그리고 그는 나와 다른 뒤 집을 나갔다.

\*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버스 창가에 기대어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연결음은 처음엔 들리지 않았다.

곧 그의 컬러링 소리가 들렸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 요’라는 노래가 귀구멍을 무겁게 눌러왔다. 도저히 이어폰을 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핸드폰을 손바닥에 내버려둔 채, ‘연결 중’이라는 글씨를 무기력하게 응시했다. 연결 중 표시는 일 분이 넘게 이어졌다.

순간 강한 불신이 들었다. 얼굴이 새빨갳게 달아올랐다. 이 별 것도 아닌 물체가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나와 그를 이어준다는 건 새빨간 거짓임이 틀림없다.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과학이란 종교의 힘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혈관처럼 허공에 즐비한 전화선들은 모조리 눈속임일 것이다. 통신망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줄 수 없다. 사실, 핸드폰으로는 물질적으로 같은 공간에 존재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없다. 지금 그와 내가 함께 있지 않다는 단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어디?”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그동안 나는 가벼운 통화들은 언제나 통화 버튼만 누르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게끔 했다. 그 알팍한 연결을 어떻게 믿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 정작 목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조차도 나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핸드폰으로 들었던 그의 목소리도 실은 그가 말하고 있던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 이를 테면, 통신사들은 모두의 목소리를 복제했고 우리가 전화를 걸면 거짓 목소리로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거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있으니, 더 이상 궁금해 할 필요 없다는 듯 연결을 보체는 우리를 안심시키고, 당장의 급급한 갈증을 채워 아무도 자신들의 알팍한 관계를 의심하지 않도록.

서로가 찾는 곳에 서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마약 같은 환상에 취해 연결감에 대한 우리의 예민함은 마비되고, 관계는 소비적 소용 속에 소모되고, 결국 오늘 같은 날에야 깨닫는 것이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지 않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떨경.  
귀를 막아 둔 이어폰 역시 무릎 위로 떨어졌다.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니 어지럼이 밀려와 눈을 길게 감았다 떴다. 화면은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었다.

나는 핸드폰을 그의 손이라도 되는 양 파악 움켜쥐었다. 받을 것을 기대하고 걸진 않았다. 단지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순간순간을 견디기 위해 기계적으로 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 바보 같은 전화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동아줄처럼 손에 쥐고 있어봤자, 그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그가 내 눈앞에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너무도 먼, 알 수 없는 곳에 그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주소록에 있는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나는 비를거리며 몇 번이나 벽을 짚었다. 그때마다 누군가 나를 부축한 기억이 났다.

\*  
내 아침은 잃드려있는 모습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된다. 숨이 막히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베게에 코를 박고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한다. 어젯밤을 같이 보낸 남자가 자고 있었다. 얼굴을 확인했다. 나를 위로해준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 목 소리가 커서 떠올랐다. 슬자리에서 늘 웃고 있었던 녀석이다. 웃는 모습이 퀴카라는 동물처럼 생겼던 걸로 기억났다.

몸을 일으키니 간밤의 불편한 자세로 인해선지 목뒀가 빠르다. 고개를 좌우로 휘젓자 박자에 맞춰 ‘우두둑’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아픈 듯이 목을 주무르자 묘한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동안 그

기분을 음미하는 것은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나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역으로 향했다. 봄비는 역사 속에서 사람으로 가득한 곳을 헤집고 나아가 승강장으로 갔다. 적당히 타이밍을 재다가 막 열차가 출발하는 타이밍에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갔다. 잘 하면 맨 앞에 설 수 있다. 반드시 맨 앞에 서야한다. 그래야만 앉아서 탈 수 있기 때문이며, 열차에 머리를 들이미는 상상을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차가 다가왔다. 주변의 소음과 함께 온몸으로 퍼지는 심장소리가 매우 경쾌하다. 노란선 앞으로 한 발 내밀었다. 스크린 도어라는 것이 없었으면 머리를 밖으로 내밀었을 것이다. 그럼 조금만 있으면 다가오는 열차가 내 머리를 치고 지나갈 것이고 나는 몸을 떠나 멀리 비행할 것이다. 나는 아쉬워하며 스크린 도어 안으로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한껏 음미한다.

지하철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숨 가쁘게 무언가를 한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 신문을 보는 사람, 책을 보는 사람 등. 다들 무언가를 보고 있다. 무언가에 매달려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 나는 상상을 즐긴다. 무장 강도가 들어와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사람들은 쓰러진다. 그 중 한 발이 내 이마에 꽂혀 나도 쓰러지는 상상 말이다. 그러다보면 시간은 어느새 빠르게 흘러가 있었다.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에 주위를 둘러보기로 했다. 발산역에서 내려서 길게 생각할 것 없이 걸었다. 지원서 넣기 전에 회사 근처를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발산역에는 맛집이 많다던데, 갈빗집에서 풍겨나는 냄새는 괜히 기분을 들뜨게 하기엔 충분했다. 걷다보니 새로 짓는 건물들,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돈 많은 선글라스 낀 여인이 푸들을 산책시키고 있을 것만 같았다.

걷다 보니 등촌근린공원이라는 곳이 나왔다. 근린공원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천호에도 근린공원이 하나 있는데 풍납도성에도 옆에 풍납근린공원이라고 있다.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매번 오는 할아버지들만이 매번 같은 장거만 두면서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너무나 시시하고 지루한 일이었다. 근린공원이란 프랜차이즈가 있는 건가? 어디에나 있다. 근데 근린이 무슨 뜻이지?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 건너편 벤치에 앉아 있는 회색 투버튼 체크무늬 재킷을 입은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 여성은 조금 누런 얼굴에 안경은 쓰지 않았다. 머리는 꽤나 길었고 말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평범했다. 이게 그녀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 점심시간에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내겐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너무 평범해서 평범한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쳐다보더니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뒤이어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다. 나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그녀를 향해 걸었다. 물론 들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었다. 쉽게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그녀는 어느 건물에 들어갔다. 이름을 보니 출판사 같았다. 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그녀와 내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무엇인가 기분이 묘했다. 나는 당초에 목적대로 면접장을 갔다.

어디?  
퀴카의 문자였다. 이제야 일어난 모양이었다. 나는 면접장으로 지정된 회의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다.

주변엔 다른 대기자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다. 눈 감고 무언가 중얼거리는 키 큰 남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다시금 고치는 여자, 무언가 두툼히 준비한 남자……. 나처럼 한가하게 핸드폰을 딸깍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면접 중  
답장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할까 했지만, 내 순서가 얼마 남지 않은 거 같아 그만 두었다. 이런 곳은 면접이 길지 않았다. 유아, 초등, 중·고등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하는 출판사였는데, 그리 유명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끝나고 전화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잠시 후 내 번호가 불렀고, 호명된 몇 명과 같이 들어갔다. 빈 의자가 몇 개 있었다.

“번호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까다롭지 않았다. 나와 같이 호명돼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원찮아 보였다. 뻔한 질문에도 우물거렸다. 상대적 우월감 덕분일까. 면접 내내 기분이 관찮았다. 면접장을 나서면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자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합격하는 게 불합격하는 것보다 더 짝짤할 수도 있다. 나는 퀴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잘 했어?”  
퀴카는 태연하게 물었다. 그게 첫마디였다. 그는 여태껏 내 방에 있었다. 내 기억에 그제야 막 잠을 깬 듯 했다. 잘 잤다는 건지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잘 잤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응. 밥 먹지.”  
“뭘 먹고 싶은 거 있어?”  
생각해보니 아침 일찍 나가서 먹은 게 없었다. 찌개류가 먹고 싶었다.

“돈까스.”  
그는 어기적어기적 일어났다. 그는 속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알 수가 없었다.

“…….”  
굳이 말하진 않았다. 어젯밤엔 어땠을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커튼이 펄럭거렸다.  
“맛다. 아까 면접 보기 전에 말아야.”  
묘한 어색함 속에서 나는 마치 할 말을 찾은 듯 침묵을 깬다.

“면접 보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공원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반대편 벤치에서 있는데 어찌나 평범해 보이던지…….”  
“아니, 전혀 평범하지 않은데? 되게 이상하잖아.”  
한동안 얘기를 들던 퀴카는 그렇게 대꾸했다. 그도 나만큼 어색해서 어떻게든 대답하려는 게 아닐까. 황실수설. 실일이 꺼냈던 얘기는 면접에 대한 얘기, 그 여자가 이상하다는 얘기까지.

퀴카, 면접, 그녀가 뒤섞였다. 중요한 건 퀴카가 전날 밤의 자초지종 따위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다. 방바닥에는 이불이 남아있었다.  
“재밌겠다. 나도 다음에 보러 갈래.”  
그 이후 한동안 퀴카는 바쁜 삶을 보냈다.

어디?  
내가 가끔 문자나 전화를 해도 퀴카는 회사에서 야근하거나 컴퓨터활용능력 따위의 자격증을 따며 학원에 있었다. 나는 매일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들어서 쓸 만한 회사를 찾아다녔다. 근처에 맛집을 찾아보고 연봉을 조사하고, 육을 내밀고. 어찌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해당 입사지원서를 다운로드 해서 후다닥 이력서를 만들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 대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학교가 굉장히 좋은 것도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도 좋고 성적으로 좋았지만, 경력 사항에는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노예다. 노예이기를 애써 거부하는 노예.

\* 이번엔 연락 은 회사는 장한편에 있는 출판사였다. 장한편 근처에 펜장은 팔장 집이 있다고 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내친김에 관련 감색어 뜨는 것들을 차례로 클릭했다. 늘 그렇듯 이력서란 페이지를 돌아다니다는 사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평생 검색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누군가가 인터넷만 돌아다녀도 알 건 다 알 수 있어서 공부하고 했는데, 아젠 누구나 인터넷이 생활이 돼 버렸기에 상식의 상한선이 대폭 올라가버렸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다.

나는 장한편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퀴카는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항상 넉넉하게 출발하기에 시간이 남았다. 나는 또 건다가 근린공원을 발견했고 그녀도 발견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무슨 스토커인가 생각했지만, 말도 안 듣다는 생각에 혼자 웃었다. 그럼에도 이 넓은 서울에서 또 마주친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그 날과 완벽이었다. 머리카락은 잘랐는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한 번 스분 뒤 일어났다. 나도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멀어질 무렵에 조심스레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내가 면접 볼 장소였다. 내 경쟁자인가? 그녀는 나보다 빠른 번호였고 나왔을 때는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 마냥 어디론가 황급히 갔다.

면접은 오도무중이었다. 취를 닦은 면접관이 있었고 따지는 게 꽤나 많았다. 인터넷 도중 내 이름을 틀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스펠을 내 스펠으로 오해했다. 면접이 이런 수준이면 합격하더라도 갈 생각이 썩 사라진다.

나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찾기 위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나갔다. 당연히 그녀가 잔작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또 그녀를 따라나서기로 결심했다. 할 것도 없었기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집에 가봤자 반동거리며 이력서에 적을 것은 없나 고민하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다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녀는 지하철을 탔다. 왕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주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술자리처럼 시끌시끌해졌다. 나는 지하철만 타면 학생질 때를 떠올리게 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굴레라고 생각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별것도 아닌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이동했다. 생각 외로 이 미행이라는 게임은 재미없었다. 영화나 소설에선 쉽게 들기지만, 현실적으로 조금만 조심

하면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뒤쫓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대놓고 따라간들 그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정로를 지나 여의나루에서 그녀는 허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겁음이 느렸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일쑤였다. 하나뿐인 길 위에 우리 둘만 있었다.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우리는 쉽게 마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한 번 그녀가 돌아보길 바랐다. 그랬다면 이 게임은 쉽게 끝났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따라가는 걸 눈치 채지 못했음은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계속 쳐다보면서 걸었지만, 그녀는 별 볼일 없는 물기를 쳐다보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된 건 어느 벤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서 물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몇 마루 없었고 누굴 기다려서 지루해 먹거나 조조하기엔 너무나 애매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보지도 않았다. 단지 물가 쪽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얼핏 보면 그녀는 근처에서 산책 나온 사람 같았다. 벤치에 앉아서 단정한 정장의 여성이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퀴카가 이상했다. 이 시간이 정장 입은 여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건가? 왜 이상하지?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물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퀴카가 있었다. “어디 갔다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그냥 잠시 나갔다 왔어.” “나는 대충 돌려댔다.” “잘 됐어?” 퀴카는 내가 뽀아놓은 이력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힘내.” “조언 좀 해봐.”

나는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

“영화 보러 가자.” “아차피 저기서 다 나오잖아?” 나는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TV에선 88만 원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N세대, 88만 원세대, G세대, W세대……. 나이 간에 거리가갑단 생기는 거 같아. 어차피 다들 힘드네 말이야.” “그게나 그거나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저런 게 면접에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관심을 가져봐. 다음 주부터 전국이 장미편에 들어간다. 장미편이 끝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한다고 하고, 기상학으로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했다는 보도도 있어.”

“아열대가 되면 안 좋냐?” 나는 귀찮은 듯 대꾸했다. “뭘, 가을이 사라지겠지.”

“근데?” “근데라냐? 사계절이 사라지잖아?”

별로 와닿는 말이 아니었다. “그럼 어때, 어차피 시시해.” “시시하디나. 안젠간 봄이나 가을을 그리워할 때가 올거려구.”

그날 밤도 여는 밤들과 다르지 않았다. 평범한 밤이었다. 우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며 잠을 잤다.

\* 퀴카와 나는 과민 코너를 지나고 있었다. 시시때 앞에서 직원들이 바나나를 잘게 썰고 있었다.

“이게 팔리면서 온 건데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서 엄청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안 사서도 되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저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걸까. 퀴카는 나를 조심스레 북북 찔렀다. 퀴카는 시식대에서 부끄러워했다. 나는 퀴카의 뺨까지 바나나 두 조각을 집어 들었다.

퀴카는 기트를 쥐었다. “돈까스 먹고 싶다.”

나는 돈까스를 집어서 카트에 넣었다. 퀴카는 그 날 이후 평범한 그녀에 대해 완전히 까먹은 듯 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여의나루까지 간 일에 대해 퀴카에게 말하지 않았다. 물론 그녀가 이상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영영 이 게임을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리면, 돈까스, 방동식품 몇 개를 사서 우리는 계산대 앞에 섰다. 퀴카는 카트에서 계산대로 상품들을 옮겼다.

“근데 어찌 면접 끝나고 뭐했어?”

나는 지갑을 꺼내며 물었다. 퀴카는 아무렇지 않을 듯 나를 봤다.

“그냥 잠시 돌아다녔어. 친구도 보고.” “내가 아는 애야?”

“달라면 말어?” 퀴카의 얼굴은 태연했다. 나는 평범한 그녀에 대해 얘기할까 했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면접을 본 후 집에서 이력서를 다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옆에서 비슷한 작업을 하는 퀴카가 말을 걸었지만, 그날은 고요했다. 퀴카는 사소한 일로 다분 뒤 흘랑 짐을 나가버린 상태였다. 걱정이 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아직도 하찮은 듯 우리 둘 다 잘못된 게 없다고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최근에 퀴카와 다루는 일이 잦았다. 서로 다들 때면 퀴카는 며칠간 짐을 버렸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 때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제법 현명한 방법이었다.

나는 괜히 발 닿는 대로 마냥 걸었다. 자연스레 동네 놀이터를 지나고, 나는 빗물이 흥건한 그늘에 앉았다. 앞뒤로 끄덕끄덕,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긴 바람이었다. 그것은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흩어지듯 모이더니 주변에서 맴돌았다. 그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분명 평범했다. 평범하지 않고 생각한 그가 이상하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그녀는 내 옆에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워런 조금씩 걸쳐졌다. 뜨거운 밀도 숲도 말도 필요가

## 소설 부문 심사평

아홉 편의 소설을 늘어놓아 보았습니다. 죽음과 절망, 실연 등이 정감다러처럼 아홉 편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작가 지망생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홉 편이지만 손에 들고 보기에 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엮어 내는 솜씨들이 아쉬웠습니다. 소설이 신문 기사나 다큐멘터리, 르포, 일기와 다른 것은 형상화라는 장치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은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닌데도 음모적의 태반이 ‘서술’만 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적 언어에 대한 고민, 인물과 상황의 조율로 이루어지는 갈등 구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소설적 언어가 지니는 미학적 힘에 대한 인식 결여는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워너비〉, 〈괴물〉, 〈살은 탓〉의 세 편을 놓고 말씀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의식도 있고 소설적 구조에 대한 감각도 예뻐보였습니다. 〈살은 탓〉은 폭력에 가까운 이기심, 비겁함, 수처심을 이끌어 낸 주제의식은 주목할 만하나 너무 직설적인 서술자나 결말부의 상황 설정이 미숙하다고 보았습니다. 〈괴물〉은 ‘P’라는 인물이 괴물로 성격화 되는 과정을 구조화해 낸 감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장을 다듬어내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워너비〉는 마지막 부분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자기애(自己愛)’의 형상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신(分身)을 평범하다고 강조하는 서술자의 태도, 분신에 대한 미움을 애써 감추며 나관적으로 그려내려 한 노력의와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문장 수업이 질실합니다. 〈워너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공모에 참가한 ‘젊은’ 작가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내년에는 기본에 충실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동현 (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

## 소설 부문 수상소감

수상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군요. 소모임 ‘정류장’에서 제 글은 언제나 난해하고 현학적이며 문제적인 작품들이었거든요. 퇴고도 잘 하지 않는 게으른 작가인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황송합니다. 수상소감으로 시로 써서 날까 아니면 아포리즘을 쓸까 했지만, 부끄러워서 덤덤하게 생각나는 대로 적기로 했습니다.

제 세계가 있게 해준 작가들이나 선생님들, 친구들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싶지만, 지면이 부족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안테나는 소설에 등장시키고 싶습니다. 풍물놀이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고, 밴드에서 노래 부를 때도 써보고 싶고, 한성대학교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습니다. 어느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

편에선 일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게 햇빛은 기웃기웃 저물어가고 있네요. 점점 한기가 스칩니다. 으스스 떨리네요. 밤이 두렵지만 저는 글을 계속 쓸 겁니다. 제 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이력서를 작성하면 대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학교가 굉장히 좋은 것도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도 좋고 성적으로 좋았지만, 경력 사항에는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노예다. 노예이기를 애써 거부하는 노예.

이번엔 연락 은 회사는 장한편에 있는 출판사였다. 장한편 근처에 펜장은 팔장 집이 있다고 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내친김에 관련 감색어 뜨는 것들을 차례로 클릭했다. 늘 그렇듯 이력서란 페이지를 돌아다니다는 사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평생 검색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누군가가 인터넷만 돌아다녀도 알 건 다 알 수 있어서 공부하고 했는데, 아젠 누구나 인터넷이 생활이 돼 버렸기에 상식의 상한선이 대폭 올라가버렸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다.

나는 장한편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퀴카는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항상 넉넉하게 출발하기에 시간이 남았다. 나는 또 건다가 근린공원을 발견했고 그녀도 발견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무슨 스토커인가 생각했지만, 말도 안 듣다는 생각에 혼자 웃었다. 그럼에도 이 넓은 서울에서 또 마주친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그 날과 완벽이었다. 머리카락은 잘랐는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한 번 스분 뒤 일어났다. 나도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멀어질 무렵에 조심스레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내가 면접 볼 장소였다. 내 경쟁자인가? 그녀는 나보다 빠른 번호였고 나왔을 때는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 마냥 어디론가 황급히 갔다.

면접은 오도무중이었다. 취를 닦은 면접관이 있었고 따지는 게 꽤나 많았다. 인터넷 도중 내 이름을 틀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스펠을 내 스펠으로 오해했다. 면접이 이런 수준이면 합격하더라도 갈 생각이 썩 사라진다.

나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찾기 위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나갔다. 당연히 그녀가 잔작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또 그녀를 따라나서기로 결심했다. 할 것도 없었기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집에 가봤자 반동거리며 이력서에 적을 것은 없나 고민하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다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녀는 지하철을 탔다. 왕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주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술자리처럼 시끌시끌해졌다. 나는 지하철만 타면 학생질 때를 떠올리게 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굴레라고 생각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별것도 아닌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이동했다. 생각 외로 이 미행이라는 게임은 재미없었다. 영화나 소설에선 쉽게 들기지만, 현실적으로 조금만 조심

하면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뒤쫓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대놓고 따라간들 그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정로를 지나 여의나루에서 그녀는 허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겁음이 느렸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일쑤였다. 하나뿐인 길 위에 우리 둘만 있었다.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우리는 쉽게 마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한 번 그녀가 돌아보길 바랐다. 그랬다면 이 게임은 쉽게 끝났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따라가는 걸 눈치 채지 못했음은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계속 쳐다보면서 걸었지만, 그녀는 별 볼일 없는 물기를 쳐다보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된 건 어느 벤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서 물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몇 마루 없었고 누굴 기다려서 지루해 먹거나 조조하기엔 너무나 애매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보지도 않았다. 단지 물가 쪽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얼핏 보면 그녀는 근처에서 산책 나온 사람 같았다. 벤치에 앉아서 단정한 정장의 여성이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퀴카가 이상했다. 이 시간이 정장 입은 여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건가? 왜 이상하지?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물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퀴카가 있었다. “어디 갔다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그냥 잠시 나갔다 왔어.” “나는 대충 돌려댔다.” “잘 됐어?”

퀴카는 내가 뽀아놓은 이력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힘내.” “조언 좀 해봐.”

나는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

“영화 보러 가자.” “아차피 저기서 다 나오잖아?” 나는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TV에선 88만 원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N세대, 88만 원세대, G세대, W세대……. 나이 간에 거리가갑단 생기는 거 같아. 어차피 다들 힘드네 말이야.” “그게나 그거나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저런 게 면접에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관심을 가져봐. 다음 주부터 전국이 장미편에 들어간다. 장미편이 끝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한다고 하고, 기상학으로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했다는 보도도 있어.”

“아열대가 되면 안 좋냐?” 나는 귀찮은 듯 대꾸했다. “뭘, 가을이 사라지겠지.”

“근데?” “근데라냐? 사계절이 사라지잖아?”

별로 와닿는 말이 아니었다. “그럼 어때, 어차피 시시해.” “시시하디나. 안젠간 봄이나 가을을 그리워할 때가 올거려구.”

그날 밤도 여는 밤들과 다르지 않았다. 평범한 밤이었다. 우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며 잠을 잤다.

\* 퀴카와 나는 과민 코너를 지나고 있었다. 시시때 앞에서 직원들이 바나나를 잘게 썰고 있었다.

“이게 팔리면서 온 건데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서 엄청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안 사서도 되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저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걸까. 퀴카는 나를 조심스레 북북 찔렀다. 퀴카는 시식대에서 부끄러워했다. 나는 퀴카의 뺨까지 바나나 두 조각을 집어 들었다.

퀴카는 기트를 쥐었다. “돈까스 먹고 싶다.”

이력서를 작성하면 대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학교가 굉장히 좋은 것도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도 좋고 성적으로 좋았지만, 경력 사항에는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노예다. 노예이기를 애써 거부하는 노예.

이번엔 연락 은 회사는 장한편에 있는 출판사였다. 장한편 근처에 펜장은 팔장 집이 있다고 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내친김에 관련 감색어 뜨는 것들을 차례로 클릭했다. 늘 그렇듯 이력서란 페이지를 돌아다니다는 사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평생 검색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누군가가 인터넷만 돌아다녀도 알 건 다 알 수 있어서 공부하고 했는데, 아젠 누구나 인터넷이 생활이 돼 버렸기에 상식의 상한선이 대폭 올라가버렸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다.

나는 장한편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퀴카는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항상 넉넉하게 출발하기에 시간이 남았다. 나는 또 건다가 근린공원을 발견했고 그녀도 발견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무슨 스토커인가 생각했지만, 말도 안 듣다는 생각에 혼자 웃었다. 그럼에도 이 넓은 서울에서 또 마주친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그 날과 완벽이었다. 머리카락은 잘랐는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한 번 스분 뒤 일어났다. 나도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멀어질 무렵에 조심스레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내가 면접 볼 장소였다. 내 경쟁자인가? 그녀는 나보다 빠른 번호였고 나왔을 때는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 마냥 어디론가 황급히 갔다.

면접은 오도무중이었다. 취를 닦은 면접관이 있었고 따지는 게 꽤나 많았다. 인터넷 도중 내 이름을 틀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스펠을 내 스펠으로 오해했다. 면접이 이런 수준이면 합격하더라도 갈 생각이 썩 사라진다.

나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찾기 위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나갔다. 당연히 그녀가 잔작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또 그녀를 따라나서기로 결심했다. 할 것도 없었기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집에 가봤자 반동거리며 이력서에 적을 것은 없나 고민하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다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녀는 지하철을 탔다. 왕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주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술자리처럼 시끌시끌해졌다. 나는 지하철만 타면 학생질 때를 떠올리게 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굴레라고 생각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별것도 아닌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이동했다. 생각 외로 이 미행이라는 게임은 재미없었다. 영화나 소설에선 쉽게 들기지만, 현실적으로 조금만 조심

하면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뒤쫓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대놓고 따라간들 그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정로를 지나 여의나루에서 그녀는 허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겁음이 느렸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일쑤였다. 하나뿐인 길 위에 우리 둘만 있었다.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우리는 쉽게 마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한 번 그녀가 돌아보길 바랐다. 그랬다면 이 게임은 쉽게 끝났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따라가는 걸 눈치 채지 못했음은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계속 쳐다보면서 걸었지만, 그녀는 별 볼일 없는 물기를 쳐다보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된 건 어느 벤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서 물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몇 마루 없었고 누굴 기다려서 지루해 먹거나 조조하기엔 너무나 애매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보지도 않았다. 단지 물가 쪽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얼핏 보면 그녀는 근처에서 산책 나온 사람 같았다. 벤치에 앉아서 단정한 정장의 여성이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퀴카가 이상했다. 이 시간이 정장 입은 여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건가? 왜 이상하지?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물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퀴카가 있었다. “어디 갔다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그냥 잠시 나갔다 왔어.” “나는 대충 돌려댔다.” “잘 됐어?”

퀴카는 내가 뽀아놓은 이력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힘내.” “조언 좀 해봐.”

나는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

“영화 보러 가자.” “아차피 저기서 다 나오잖아?” 나는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TV에선 88만 원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N세대, 88만 원세대, G세대, W세대……. 나이 간에 거리가갑단 생기는 거 같아. 어차피 다들 힘드네 말이야.” “그게나 그거나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저런 게 면접에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관심을 가져봐. 다음 주부터 전국이 장미편에 들어간다. 장미편이 끝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한다고 하고, 기상학으로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했다는 보도도 있어.”

“아열대가 되면 안 좋냐?” 나는 귀찮은 듯 대꾸했다. “뭘, 가을이 사라지겠지.”

“근데?” “근데라냐? 사계절이 사라지잖아?”

별로 와닿는 말이 아니었다. “그럼 어때, 어차피 시시해.” “시시하디나. 안젠간 봄이나 가을을 그리워할 때가 올거려구.”

그날 밤도 여는 밤들과 다르지 않았다. 평범한 밤이었다. 우리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보며 잠을 잤다.

\* 퀴카와 나는 과민 코너를 지나고 있었다. 시시때 앞에서 직원들이 바나나를 잘게 썰고 있었다.

“이게 팔리면서 온 건데 비타민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서 엄청 맛있어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안 사서도 되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직원은 저런 말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는 걸까. 퀴카는 나를 조심스레 북북 찔렀다. 퀴카는 시식대에서 부끄러워했다. 나는 퀴카의 뺨까지 바나나 두 조각을 집어 들었다.

퀴카는 기트를 쥐었다. “돈까스 먹고 싶다.”

이력서를 작성하면 대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회사에서 원하는 건 학교가 굉장히 좋은 것도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다. 얼마나 회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학교도 좋고 성적으로 좋았지만, 경력 사항에는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노예다. 노예이기를 애써 거부하는 노예.

이번엔 연락 은 회사는 장한편에 있는 출판사였다. 장한편 근처에 펜장은 팔장 집이 있다고 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내친김에 관련 감색어 뜨는 것들을 차례로 클릭했다. 늘 그렇듯 이력서란 페이지를 돌아다니다는 사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 한때는 이런 식으로 평생 검색만 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누군가가 인터넷만 돌아다녀도 알 건 다 알 수 있어서 공부하고 했는데, 아젠 누구나 인터넷이 생활이 돼 버렸기에 상식의 상한선이 대폭 올라가버렸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다.

나는 장한편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 퀴카는 회사에 출근했다. 나는 항상 넉넉하게 출발하기에 시간이 남았다. 나는 또 건다가 근린공원을 발견했고 그녀도 발견했다.

처음에 나는 그녀가 무슨 스토커인가 생각했지만, 말도 안 듣다는 생각에 혼자 웃었다. 그럼에도 이 넓은 서울에서 또 마주친 것이 신기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그 날과 완벽이었다. 머리카락은 잘랐는지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한 번 스분 뒤 일어났다. 나도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녀가 멀어질 무렵에 조심스레 일어나서 따라갔다.

그녀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건물은 내가 면접 볼 장소였다. 내 경쟁자인가? 그녀는 나보다 빠른 번호였고 나왔을 때는 다른 급한 일이 생긴 것 마냥 어디론가 황급히 갔다.

면접은 오도무중이었다. 취를 닦은 면접관이 있었고 따지는 게 꽤나 많았다. 인터넷 도중 내 이름을 틀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스펠을 내 스펠으로 오해했다. 면접이 이런 수준이면 합격하더라도 갈 생각이 썩 사라진다.

나는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녀를 찾기 위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나갔다. 당연히 그녀가 잔작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또 그녀를 따라나서기로 결심했다. 할 것도 없었기에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집에 가봤자 반동거리며 이력서에 적을 것은 없나 고민하다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다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녀는 지하철을 탔다. 왕실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탔다. 주로 학생들이 많았는데 덕분에 술자리처럼 시끌시끌해졌다. 나는 지하철만 타면 학생질 때를 떠올리게 된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굴레라고 생각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은 별것도 아닌 얘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옆으로 이동했다. 생각 외로 이 미행이라는 게임은 재미없었다. 영화나 소설에선 쉽게 들기지만, 현실적으로 조금만 조심

하면 절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뒤쫓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대놓고 따라간들 그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충정로를 지나 여의나루에서 그녀는 허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겁음이 느렸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해도 그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기 일쑤였다. 하나뿐인 길 위에 우리 둘만 있었다. 만약 그녀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우리는 쉽게 마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나는 한 번 그녀가 돌아보길 바랐다. 그랬다면 이 게임은 쉽게 끝났을 것이다.

어쨌든 그녀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따라가는 걸 눈치 채지 못했음은 분명했다. 나는 그녀를 계속 쳐다보면서 걸었지만, 그녀는 별 볼일 없는 물기를 쳐다보며 걷고 있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된 건 어느 벤치에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벤치에 앉아서 물가를 보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냈다. 어찌 보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이 거대한 몇 마루 없었고 누굴 기다려서 지루해 먹거나 조조하기엔 너무나 애매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나 따윈 안중에도 없는 듯 보지도 않았다. 단지 물가 쪽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얼핏 보면 그녀는 근처에서 산책 나온 사람 같았다. 벤치에 앉아서 단정한 정장의 여성이 강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퀴카가 이상했다. 이 시간이 정장 입은 여성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있는 것이 정말 이상한건가? 왜 이상하지? 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물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니 퀴카가 있었다. “어디 갔다와?”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었다. “그냥 잠시 나갔다 왔어.” “나는 대충 돌려댔다.” “잘 됐어?”

퀴카는 내가 뽀아놓은 이력서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냥.” “힘내.” “조언 좀 해봐.”

나는 말을 해놓고 아차 싶었다. 다행히 퀴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

“영화 보러 가자.” “아차피 저기서 다 나오잖아?” 나는 TV를 가리키며 말했다. TV에선 88만 원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N세대, 88만 원세대, G세대, W세대……. 나이 간에 거리가갑단 생기는 거 같아. 어차피 다들 힘드네 말이야.” “그게나 그거나지.”

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그래도 저런 게 면접에 나올 수도 있잖아. 좀 관심을 가져봐. 다음 주부터 전국이 장미편에 들어간다. 장미편이 끝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한다고 하고, 기상학으로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했다는 보도도 있어.”

“아열대가 되면 안 좋냐?” 나는 귀찮은 듯 대꾸했다. “뭘, 가을이 사라지겠지.”

# 인공지능... 인간의 경쟁자이거나 조력자이거나

최근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Google)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인 'AutoML(Automated Machine Learning)'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AutoML은 기계학습 모델의 설계를 자동화하는 접근 방식으로, 최선의 인공 신경망이 더 나은 신경망을 설계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셈이다.

새로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과 인공 신경망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AutoML은 인간 전문가가 설계한 신경망과 동등한 작은 신경망을 구축해, 이런 인공지능 개발 과정을 더 쉽고 빠르게 해준다. 최근, 이 접근법을 통해 구글은 대규모 이미지 분류, 객체 감지 등 인공지능 개발 부문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의 미래가 인공지능 산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로 보인다. 구글 CEO 선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연례 개발자 회의인 구글I/O에서 "모바일 중심에서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할 것(Mobile first to AI first)"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구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바이두(Baidu), 페이스북(Facebook) 등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공지능 개발자와 엔지니어뿐 아니라 비서,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심지어 화가, 작사가, 작곡가 등의 창작자도 안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영국의 스타트업 주크텍(Jukedek)은 음악을 작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 이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장르와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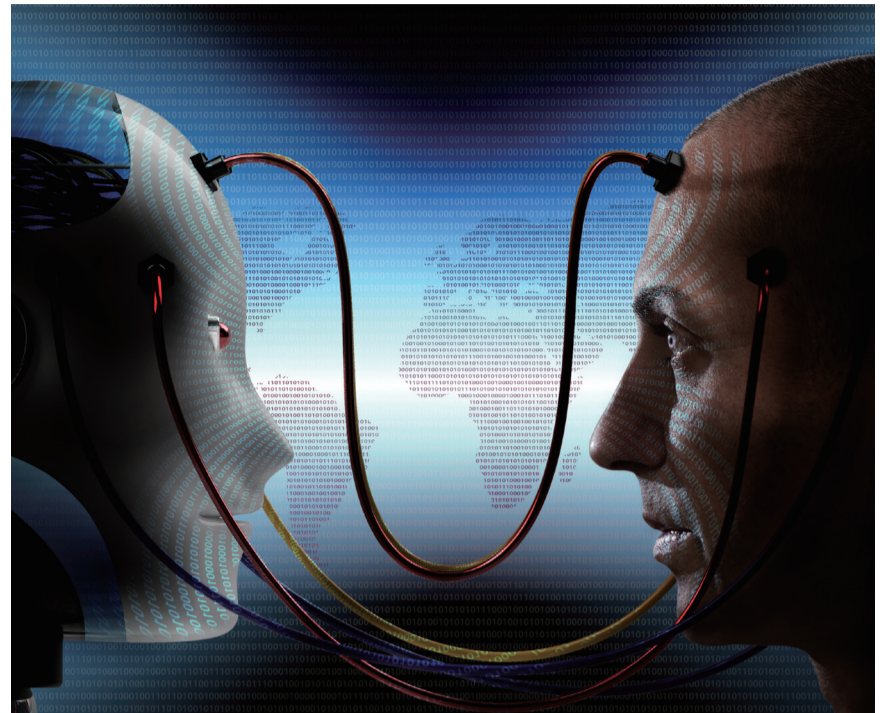
템포, 곡의 길이 등을 설정하면 원하는 음악을 30초 남짓한 시간만에 작곡해준다. 주크텍은 매번 다른 음악을 작곡해 들려주며, 이렇게 작업한 음악은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딥 드림(Deep Dream)'은 주어진 이미지를 해석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화 스타일로 그려낸다. 딥 드림으로 제작한 29점의 작품은 단 한 번의 전시회와 경매로 한화 약 1억 16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지금까지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던 고유한 영역이었으나,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 인공지능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시대

지난 10월 26일 넬슨코리아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 자리를 대체하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2%에 달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에 발표한 '자동화에 따른 OECD 국가 간 일자리 위험 비교 분석 보고서'에서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인 직업은 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개발한 IBM의 개발자 앤드류 노든(Andrew Norden)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특정분야 종사자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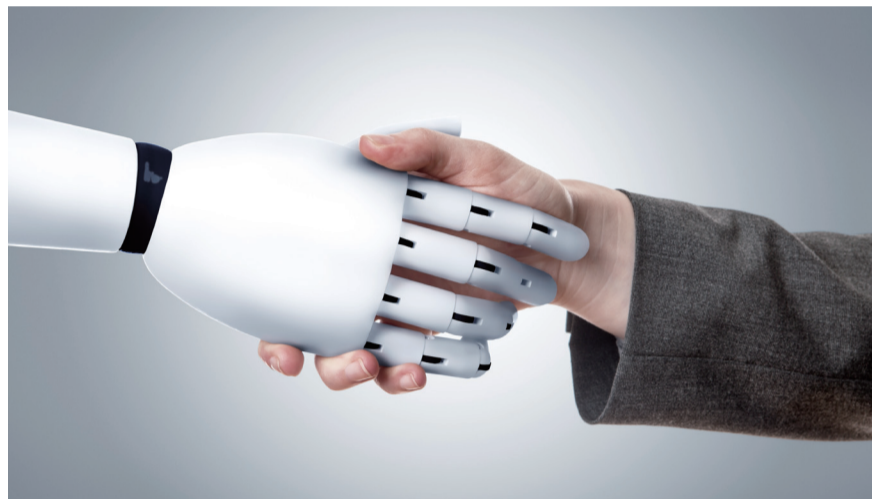
예를 들어 범죄 예측 서비스 '프레드폴



(PredPol)'은 과거 발생한 범죄 종류와 시간, 장소 등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프레드폴은 기존의 수동적이었던 경찰 업무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효과로 실제 범죄 발생 횟수가 감소했다. 또, 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자료를 근거로 형사 재판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결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범주인의 판단을 도와주는 도우미 개념의 인공지능 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계속해서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조력자로 남을 것인지, 경쟁자가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그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고민이 더 이상 특정 전공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성훈(기계전자공학부) 교수는 "시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빨리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 역사 칼럼

### 미완의 혁명가, 전태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는 2002년 랍퍼 MC 스나이퍼가 1987년 가수 안치환이 발표한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원곡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을 다룬 데 반해, MC 스나이퍼는故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원곡에 60~70년대 청계천 직공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묘사한 가사를 덧붙였다.

노래의 배경이 된 60~70년대는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시기였다. 노래 가사와 같이 '노동자만을 위한 노동법은 사라진 지 오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계현(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면서 받은 일당은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임금을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태일은 노동운동에 뛰어 들었다.

전태일은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펼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공부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에 이미 '하루 8시간 노동할 것'과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후 1970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노동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제목: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작자: MC 스나이퍼  
연도: AD 2002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변방이 정부의 탄압에 부딪혔다. 정부는 그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어 노동자들이 동조하지 못하게 했으며, 집회 도중 경찰을 동원해 플래카드를 찢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1970년 11월 13일, 그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그의 죽음은 국민들에게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창설 역시 활발하게 일어나 1970년대에만 2,500개의 노조가 새로 조직됐고, 이러한 노동운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동운동은 갈 길이 멀다.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적고, 여전히 기업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는 2002년 랍퍼 MC 스나이퍼가 동명의 원곡을 리메이크해 자신의 1집 《So Sniper》에 수록한 곡이다. 그는 가수 안치환의 원곡에故 전태일 열사를 기리는 가사를 덧붙였다. 가사에는 '먼지가 묻어 검은 피를 토하는 아이', '닭장으로 묘사된 좁은 작업실' 등 70년대 당시 열악했던 근로 환경이 묘사되어 있다. 이 곡으로 MC 스나이퍼는 사회비판적인 가수로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과 일부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게다가 2010년에는 유명 대형마트 체인인 '이마트'가 '계약직 근로자들이 '전태일 평전'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태일의 희생으로 노동환경은 개선됐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 그의 혁명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노래 가사와 같이 '늘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것들을 이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윤희승 기자  
yoonhg@gmail.com

## 한글 잡학사전

### 마! 사투리 좀 하나!



####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 김 기자 김막잡잡의 진행자
- 사 씨 경상도 토박이인 남자
- 투 씨 전국 사투리에 능통한 여자
- 이 씨 사투리 이해능력시험의 만점자

김 기자: '가가가가?', '가가가가가?' '가'만 말하지만 두 말에 다 말쑥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각 지역에서는 가지각색의 사투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투리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신묘한 것 같아요. 대구와 부산 두 도시는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만, 다른 역할을 구사 하나가요.

사 씨: 지역을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사투리는 사실 그 안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경상북도 사투리는 대구와 경산·청도 등을 묶은 동남 지역, 경주와 포항·울진 등을 묶은 동해안 지역, 김천과 구미·칠곡 등을 묶은 서남 지역, 안동과 봉화·영주 등을 묶은 서북 지역 등 4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북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겠지만,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은 인사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북 사투리의 지역별 특징은 의문문에서 잘 나타나고, 심지어 말끝만 들어도 지역 구분이 가능하니까요.

투 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지방에만 사투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나라의 표준어는 서울말이지만, 사실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표준어'는 국어사전이 편찬, 간행되던 1930년대 이후, 당시 중류사회에서 사용하던 서울말을 지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류사회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서울 토박이들이 대대로 써온 말을 '서울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사투리는 표준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발음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메느리(며느리) 같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거나, 기쁘다(기쁘다)처럼 순음 밑의 'ㄴ'이 설음이나 치음 위에서 'ㄴ'로 변하는 원순모음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새까맣다(새까맣다)처럼 'ㄴ', 'ㄷ', 'ㄹ' 같은 음성 모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씨: 사람뿐 아니라 물고기도 사투리를 쓰는데요. 바로 대구입니다. 동부 대서양에 사는 대구는 산란기가 되면 매년 산란장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특이한 장면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대구가 내는 소리가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북미 대륙 인근 바다의 대구는 딱딱 끊어지는 소리, 툭툭 부딪치는 소리, 막대기가 서로 부딪치는 소리 등을 내지만, 유럽 대륙 인근 바다에 사는 대구는 덜덜 거리는 소리, 그러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대구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사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언어학에서는 사투리와 방언을 구별하는데요. '방언'은 그 자체로 독립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 언어의 변종이며, 사투리는 표준말과 달리 그 지방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김막잡잡은 11면 여행기획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 의화정 한 해의 끝에서 Carpe Diem의 의미를 되새기며

새내기 교수로서 한성대의 구성원이 된 벅찬 마음으로 2학기 개강을 맞이한 것이 불과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매서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올해의 끝을 마주하고 있다. 바쁘게 하루를, 일주일, 한 달을 살다보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새삼스럽지 않지만, 꽤 오래 전부터 “지금 이 순간을 살자(Live in the moment)”를 삶의 모토로 삼았던지라 한 해의 끝을 맞이할 때마다 시간에 쫓겨 매 순간에 충분히 머무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바쁜 일상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현재를 낭비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서도, 정해진 일정에 쫓기다 보면 금세 잊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주인공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을 처음 만나면서 전한 말이 라틴어구 'Carpe Diem(Seize the day, 현재를 즐겨라)'이다. 영화의 배경인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 없이 입시에 쫓기는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님은 피동적으로 입시를 위한 지식을 쌓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각자의 인생을 설계할 것을 가르친다. 이 가르침은 필자가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연말연시를 맞으며 우리 한성대 학생들도 많은 생각과 감정의 교차를 경험하고 있을지 모른다. 일 년 동안 목표한 바를

이루어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로 속상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특별한 생각과 실천이 없이 한 해가 지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각자가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지가 아닐까? 내가 이런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물들이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현재의 내가 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과거의 좋은 기억과 경험, 미래의 목표와 희망을 소중히 하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자신의 “지금 이 순간”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응원할 것이다.

김지성(사회과학부 공직진출트랙) 교수

### · 삼 학 송 ·

## 권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유명한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 만약 현대 한국에 사르트르가 살아 돌아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아마 그는 위대한 철학자보다는 실없는 아재개고 구사자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지만 내 짧은 인생을 반추해 보는데, 현대 한국에서도 사르트르의 명언은 우리네 인생과 놀라울 정도로 합치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가 말하는 B와 D는 잘 몰라도, 적어도 인생만큼은 'C' 음절로 시작하는 한국어 단어라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구태여 그 단어를 지면에 적어놓는 풍류 없는 짓거리라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당신의 명석하고도 속세에 찌든 두뇌는 능히 답을 찾았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연 위인의 명언은 시대와 공간, 심지어는 언어마저도 초월하는 법이다.

현대는 '반(反) 지성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이전에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어졌던 위대한 고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스개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권위 붕괴의 시대'인 것이다. 왜, 철학자 하나 아렌트조차도 “권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권위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하지 않았나. 물론 아렌트는 ‘진정한 권위’에 대한 탐구의 과정으로 발설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물어야 할 정도로 권위가 가진 정체성은 희미하기만 하다.

근대까지, 권위는 ‘글을 생산하는 능력’과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영어에서 ‘저자’를 뜻하는 단어인 ‘Author’와 ‘권위’를 뜻하는 단어인 ‘Authority’의 형태적 유사성에 집중해보면 이 사실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문자를 배우고 그 문자를 끊임없이 늘어놓고 정돈하여 장문의 책을 완성하는 능력이야말로 ‘어중이떠중이’들은 꿈도 못 꾸는 매우 강력한 권위 그 자체였던 것이다. 실제로 당대에 ‘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쇄판을 만들고, 대량의 종이를 들어 제본을 하고,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동안 본인의 저작에 공을 들인 작가, 철학자, 과학자 등에게나 허용되던 일이었다.

이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매일 ‘글’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 자체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저널리즘’이라는 품격이 요구됐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언론이 쏟아내는 ‘글’과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쏟아내는 ‘글’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공신력, 필력, 정보……. 여러 가지를 세어볼 수 있지만, 이조차도 ‘속보 경쟁’에 불붙어 저널리즘을 저버리는 언론들을 생각하면 영 체신이 서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시대, 언론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태의연한 ‘권위’에게 물어볼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다.

이주형 편집국장

### 기자수첩 학생 대표의 무책임, 이대로 지속할 것인가

퇴임 전 마지막 신문을 마감하는 와중에 올해도 어김없이 학내 선거철이 지나갔다. 약 2년간 학내 취재를 전담하며 학내 임원들의 후보 출마, 선출 및 퇴직을 지켜봤지만, 그들이 오고 간 자리가 과연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재 총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등을 포함한 학생기구 대표들은 출마 당시 각각의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막상 후보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면, 공약의 반 이상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었다. 또한 막연한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후보가 태반이었다. 학생 대표들의 공약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또한 문제다. 과거 <한성대신문>에서 다뤘듯이, 손성민 전

총학생회장은 임기 동안 공약의 반 정도를 이루지 못했으며, 학생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 덧붙여 현재 임기가 끝나가는 김준호 총학생회장의 공약 이행률도 <한성대신문> 524호 취재 당시 33.3%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학생대표의 공약 불이행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학내에 일어난 변화로 공약을 이행할 필요 없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학생들의 요구가 바뀌어 공약 이행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상황을 공지하거나, 학내 상황에 맞추어 수정된 목표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도 지극히 본 적이 없다.

학생 대표로서 자신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표가 공약 이행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다수의 대표에게 자신의 직책을 짊어질 만큼의 책임감이 있다면 과연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총대의원회라는 감사기구가 존재하지만, 재정 감사에 그칠 뿐 공약 이행 관련 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 투표에서 당선된 대표들에게서도 같은 문제점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그들의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보다 명확히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대의원회의 감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후보가 출마할 때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임기 중에도 확대 시행해, 학생 대표의 향후 목표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 낙산에 올라

“내게 사랑할 누군가를 찾아줄 수 있나요?” 영국 밴드 퀸(Queen)의 “섬바디 투 러브(Somebody to love)”의 첫 소절이다. 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이 노래는, 사랑할 사람을 찾을 힘마저 없을 정도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자신에게 짝을 찾아달라고 신에게 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 짜질하고 무기력하지 않은가? 사랑이란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고,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이 사랑할 누군가가 푹 떨어지길 바란다.

나는 결혼을 바랐던 사람이다. 되도록 일찍 결혼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길 싶은 마음이 컸다. 대학에 와서는 이 안정을 바라

급급한 마음이 든 적도 많다. 남자친구가 있어 결혼할 사람도 생기는 건데, 남자친구가 도통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고, 우습게도 가사에 크게 공감했다. ‘나에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달라졌다. 나의 이 외로움이, 안정을 바라는 마음의 출처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생일 때도, 취업도, ‘주인’이 없는 미혼의 어린 여자로서 잘 해나갈 자신이 없었고, 결혼을 하면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 편안하고 안정된, 도에 벗어난 삶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맞다. 결혼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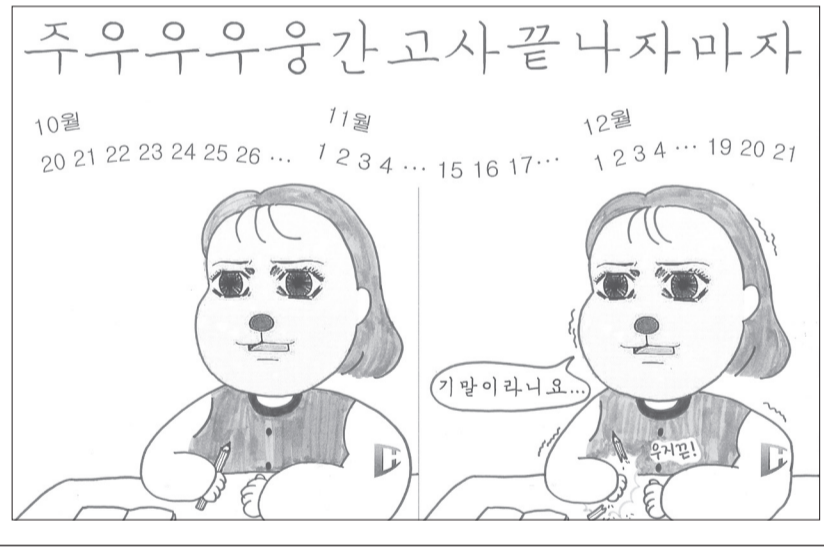
나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 허하고, 외롭고, 자신감 없는 마음일 때 내 자신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어른들이 말하는 ‘좋은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내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훌륭하게 성장한 게 아닌 것처럼, 그냥, 그 외로움을 마주보고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감을 얻기를, 하늘에서 떨어진 Somebody(누군가)가 아닌 자신만의 사람을 찾기를 바란다.

이아윤(회화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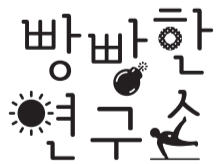
### Somebody to love

### 낙산만평

박아름(패션 1)



### 상상관 2층 베이커리 카페



BREAD | SANDWICH  
COOKIE | COFFEE  
BEVERAGE

예약문의  
070-4027-1423



### 상상관 12층 서양식탁 밀가옥



HAMBAL STEAK | RICE  
NOODLE | BURGER  
PIZZA | SALAD  
SOUP | DESSERT

예약문의  
070-4027-1422



# 김 기자와 김 기자의 탕진잼,

## 먹거리의 전주? 유적지와 박물관의 전주!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기자는 먹었다. 도착하자마자 하염없이 먹었다. 흰떡색의 초코파이 10개, 비빔밥, 육전, 떡갈비, 피순대국밥……. 물론 모주로 입가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북 전주에 도착하고 나서 하루 만에 먹어치운 것들이었다. 전주는 다양한 먹거리로 그 위상이 전국에 자자한 여행지다. 기자가 그랬듯이, 관광할 때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가 바로 전주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뺨만으로는 살 수 없는 법. 내 육체의 양식을 채웠다면 이제는 마음의 양식을 채우려 떠날 차례다.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서면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궁궐이 있는데, 바로 '경기전'이다. 한옥마을에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가보는 장소지만, 이곳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고 가는 관광객은 드물다.

경기전은 1410년에 지어진 곳으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인 어진을 받들어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처음에는 어음으로 불렸으나, 이후 세종 때 경기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재의 모습은 정유재란 때 일부 소실된 것을 1614년 광해군 시절 중건한 것으로

지금은 전주시에서 경기전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전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부터 실록을 보관해온 전주사고와 조선시대 임금들의 초상화를 모아 놓은 어진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한 한옥마을을 둘러보았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위를 살펴보자. 한옥마을을 떠나 도보로 20분 정도 이동하면 국립무형유산원이 나온다. 20분 동안 걸어야 한다고 해서 길이 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국립무형유산원까지 가는 길에는 조선시대 학교의 역할을 수행했던 향교, 한옥마을 일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인 오목대-이목대, 여러가지 그림으로 예쁘게 꾸며진 자반 벽화 마을이 있기 때문이다. 천천히 구경하며 걸다 보면 국립무형유산원까지의 여정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국립무형유산원에 도착하면, 그 광대한 넓이에 무엇부터 봐야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상설전시장부터 가보길 권한다. 동향대의 전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무형문화재들을 영상으로 전시해 늘 상영



하고 있다. 그 종류는 무려 9가지나 되며,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무형문화재를 설명해 주어 해설사가 없더라도 방문객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주에는 이처럼 둘러볼 곳이 도처에 즐비해있다. 만약 전주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먹거리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주의 깊은 역사를 담고 있는 유적지와 박물관을 탐방해보자.



## 야누스 같은 매력을 지닌 여수

'야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디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가? 한강, 남산, 낙산공원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장소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통적으로 떠올릴 만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여수다. 2012년 가수 버스커버스커가 발표한 (여수 밤바다)가 국민적인 인기를 구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수의 밤바다'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수에는 돌산공원, 동동다리 등 아름다운 야경이 도처에 널려있고, 여수시

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간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티투어 버스 관계자인 최경남(동서관광) 관리기사는 시티투어 버스의 인기에 대해 "올해 성수기인 8월에는 약 3,700명이 이용했고, 비수기인 11월에도 약 2,000명이 이용했다"고 밝혔다. 가히 밤의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여수는 남들이 흔히 아는 것처럼 밤바다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여수가 몰랐던 여수의 색다른 모습을 살펴 떠나보자.

여수시의 동쪽에 위치한 오동도는 시내 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관광지다. 버스에서 내리면 곧장 오동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밤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방파제를 통해 오동도까지 들어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방파제를 따라 오동도와 관련된 전설이 조각되어 걷는 내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해



### 뚜벅이들의 실질주관절

뚜벅이 김 기자들이 3박 5일의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떤 이쪽 해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할당된 지면이 부족해 차마 쓰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필자는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더 소개하기 위해, 지면을 할애하기로 과감하게 결심했다. 이번 겨울방학에 내일로 여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후회 없는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이 기사를 꼭 참고하라.

### 청춘여행의 시작, 내일로!

내일로는 코레일에서 기획한 자유여행패스의 일종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기차(KTX 제외)를 지정된 일주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행패스이다. 이 패스는 매년 여름(6월~8월)·겨울(12월~2월) 방학에만 판매한다. 내일로는 5일권과 7일권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여행 일정에 맞게 구매하면 된다. 내일로 이용자들에게는 특별도 제공된다. 혜택을 받을 여행을 지정하면 내일로 여행에 필요한 몇 가지 물품(갈레, 셀카봉, 치약칫솔세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객차 제공하는 물품이 다르니 신중하게 선택할 것 바란다.



### 당신이 보지 못한 전주의 모습



### '남만'보다 더 좋은 '교동'

인터넷에 소문난 여수 '남만포차'를 방문한다면, 실망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음식의 양이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절판적인 가성비'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교동시장 포장마차'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남만포차와 가격은 비슷하지만, 양이 훨씬 많고 맛도 더 좋기 때문이다.



### 아이에서 맛보는 홍길동전



### 나만을 위한 수공예 액세서리

강릉 경포호수공원에는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오는 인물들을 익살스럽게 꾸민 조각상들이 즐비해있다. 조각상에는 소설의 어느 장면을 형상화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문이 붙어 있어 이해하기에도 어렵지 않다. 조각상을 보면서 홍길동전의 내용을 되새겨 보는 것도 또 다른 묘미다.

가공을 위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박물관을 하나 소개한다. 바로 '여명 카페라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카메라의 역사와 현재까지 작동이 가능한 500여종의 카메라가 전시돼 있다. 또한, 한 지 사진인화, 필름카메라로 찍고 사진앨범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가공을 위해 쉽게 지나치기 쉬운 박물관을 하나 소개한다. 바로 '여명 카페라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카메라의 역사와 현재까지 작동이 가능한 500여종의 카메라가 전시돼 있다. 또한, 한 지 사진인화, 필름카메라로 찍고 사진앨범 만들기 등 각종 체험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 꿀잼, 슈퍼 내추럴잼 여행



## 동해를 벗 삼아 강릉을 만끽하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청량리역에서 23시 25분에 출발하는 정동진행 무궁화호에 몸을 싣고, 꼬박 하룻밤을 달리면 새벽 5시쯤 정동진역에 도착한다. 동해와 맞닿아 있는 정동진역은 전국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동진역 인근에서는 철길과 해안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동진역은 유명한 일출 명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해돋이 시간이 맞춰 해변으로 향하는 정동진행 열차가 운행되면서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동진은 해돋이로 가장 유명하지만, 실제로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80일 남짓. 서너 번은 가야 제대로 된 해돋이를 한 번 볼 수 있는 셈이다. 필자 역시 꼭두새벽에 정동진까지 갔지만 해돋이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정동진은 아침마다 해돋이를 감상하려는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정동진역의 최유진(코레일) 담당자가 "월 4만 2천 명 정도의 인원이 정동진역을 다녀간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초등학교 교실보다 작은 정동진역 대합실은 해프기 전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만원이다.

정동진에서 일출을 맛봤다면, 그 후에는 강릉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강릉은 자연과 유적, 맛집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다. 그중에서도 순두부무 유명한 초당동과 커피향을 뿜어내는 안목해변은 강릉에서도 추천할 만한 여행지다. 이 두 곳은 강릉 바우길의 5번째 코스인 '바다 호숫길'에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가을바다를 제대로 감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코스를 따라 사천해변공원에 서부터 경포대를 돌아 강릉해변과 남양진 해변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다.

초당동에는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하균, 그의 누나이자 시인인 허난설헌, 이 두 사람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있는데, 초당동의 지명은 이들 오누이의 부친인 허엽의 호 '초당'을 따서 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당동 순두부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하균-허난설헌 기념공원은 이들이 생전에 쓰던 물품과 자료 등이 있는 기념관, 생가, 숭배 등이 있다. 이들의 생가는 토담과 숭배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그 모습은 연꽃과 닮아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 명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초당동과 교실보다 작은 정동진역 대합실은 해프기 전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만원이다.

정동진에서 일출을 맛봤다면, 그 후에는 강릉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강릉은 자연과 유적, 맛집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저 있다. 과거 명물이었던 커피자판기 때문에 커피거리라 불렸던 이곳에는 현재 아름다운 외형의 카페들이 즐비해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푸르른 바다를 보며 마시는 커피의 맛은 다른 때보다 각별하다.

강릉은 해돋이를 보기 위해 밤 열차를 타고 무박여행을 떠나도 좋고, 코스를 따라 돌레길여행을 떠나도 좋은 도시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가. 지금 당장 정동진행 열차에 몸을 실어보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 부산여행 함 해보입시다

대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도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 부산근대역사관 등 남포동에 서려있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보자.

맨 처음 살펴볼 곳은 40계단 문화관광테마거리다. 얼핏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부산역은 분주했다. 북쪽에는 부산역을 빠져나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부산여행의 메카'라고 불리는 남포동을 만날 수 있다. 남포동에는 국제시장, 광복시장, BIFF광장 등 유명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다. 앞서 말한 유명관광지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일

후 형성된 보수층 책방골목이다.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책방골목에는 현재 50여 곳이 넘는 책가게가 있다.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골목으로 자리매김 상태다. 실제로 이곳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이루어진 부산의 아픈 근현대사를 담고 있다. 또한, 이곳에는 부산의 근대거리를 재현한 전시실이 있어, 방문객들은 조금 더 생생하게 그 당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국난이 다 지난

## 김 기자가 막 돌아와서 알려주는 잡다한 팁!

-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 김 기자: 김막알집의 진행자
  - 강 씨: 강원도의 바다사나이
  - 부 씨: 부산의 명물만 찾아다니는 마니아
  - 전 씨: 남부시장을 사랑하는 사람

김 기자: 이번에는 기사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각 지역의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강릉을 찾을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강 씨:** 정동진에서 삼척을 잇는, 바다연차를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 약 1시간 20분을 탑니다. 개통 이후 약 100만 명이 탑승한 동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코스이기도 합니다. 일반열차처럼 전행만항으로 의자가 놓인 것이 아니라 좌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의자를 좌우로 배치했습니다. 바다를 보기 위해 일부러 고개를 들릴 필요가 없는거죠.

김 기자: 단지 바다를 따라 달리지만 하던 지루할 법도 한데요?  
**강 씨:** 그래서 바다연차는 호별로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호차는 고급스러운 특식, 2인 1실로 구성된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호차는 4인 1실로 이뤄진 가족석과 포토존이 있는 이벤트석이 마련되어 있고요.  
**부 씨:** 부산 진구에서요. 훌륭한 관광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평화시장,

서면 돼지국밥골목 등 부산의 명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화시장에는 주로의 류와 잡화류를 파는 도·소매점이 많은데, 광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돼지국밥골목은 10여 개의 가게가 모여 번성하던 장소였으나, 현재는 절반가량의 가게만이 남아 명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평화시장과 함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 소라 볼 수 있습니다.  
**전 씨:** 전주 풍남문(豊南門) 근처에 위치한 '남부시장'도 가볼 만합니다. 남부시장은 1884년부터 간이시장으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부터 정식으로 건물을 개축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김 기자: 남부시장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 젊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면요?  
**전 씨:** 비어있던 점포를 활용한 '청년들이'를 채운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식단, 보드게임방, 디자인 공방 등이 있어 이곳에 가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액세서리, 소품을 살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김 기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시장을 운영한다는데요. 밤에 찾아가 좋은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떤가요? 김 기자의 꿀팁과 함께 한다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만족할 겁니다.





# 동심의 세계로 풍당 '키덜트'



'키덜트(Kidult)'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키덜트란 '어린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장난감을 찾는 마니아층을 말한다. '키덜트 문화'는 최근 성인들이 다시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키덜트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사람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피터팬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어린이'로 자처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와 다르게 키덜트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마음으로 아끼자기하고 재밌는 것을 추구한다.

## 우리는 원래 순수했다

그렇다면 키덜트는 왜 성인이 되어서도 장난감을 찾는 걸까? 곧 튀어나올 듯 생생한 캐릭터가 전시돼 있는 장난감 박물관에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피규어뮤지엄W'의 김혜숙 부관장은 "어른들이 장난감을 찾는 행동에는 '동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 지쳐있을 때, 순수하게 장난감을 갖고 놀며 이유 없이 재미를 느끼던 과거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바비 인형의 머리카락을 빗고, 미니카를 조종하며 아무 걱정 없이 웃던 그 시절 말이다. 결국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장난감에서 위안을 얻게 하고, 직접 장난감을 사고, 만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이다.

## 어쩌면 당신도 키덜트?

사람들은 장난감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

보며 흔히 장난감 '덕후'라고 부른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장난감 종류에 집착하고, 혹은 희소성 있는 장난감을 시리즈별로 수집하고 있다면 당신도 어엿한 장난감 덕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키덜트는 굳이 장난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덕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덕후가 아니라도 충분히 키덜트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인형뽑기를 시작으로 키덜트 세계에 발을 들인 우리학교 강예림(사회과학 1) 학생은 "길을 가다가 애인이 귀여운 '무민' 인형을 뽑아줬다. 그후로 무민이 최고로 아끼는 캐릭터가 됐다"면서 "무민 인형을 책상 위에 나열해두거나 가방에 달고 다닌다. 또 무민 필통이나 무민 피규어와 같은 상품들을 보면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고 '무민'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이처럼 사소한 계기로도 충분히 키덜트 문화에 입문할 수 있고, 애정만 있다면



그렇게 전문적인 필요도 없다.

## 수집욕을 부르는 마성의 '피규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의 피규어를 보면 종류별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대가가 비록 지갑이 '탈탈' 털리는 것이라도 말이다. 이에 대해 김 부관장은 "저렴하고 작은 피규어를 수집하다가 점점 비싼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정교하고 웅장한 피규어를 수집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그는 "단순한 수집을 넘어 피규어로 '채테크'도 하는 시대다. 희소 가치가 있는 피규어를 사고 팔면서 취미생활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금전적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규어의 대부분은 만화 캐릭터나 영화배우를 모티프로 만들어진 다. 만화영화 속 캐릭터를 눈앞에서 보고 직접 만질 수 있으니 소장 욕구가 솟아나고서야 못 배기는 것이다.

## 조립의 무한 매력 '레고'와 '프라모델'

레고(LEGO)는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난감이다. 집, 자동차, 고양이 등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색깔과 크기의 블록을 서로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 레고에 관심이 간다면 '나노블록'으로 시작해보자. 나

노블록은 지하철역 상가에서 몇 천 원이면 구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나노블록을 모으다 보면 좀 더 전문적인 레고를 조립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다. 시중에는 복잡하고 거대한 레고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하나 구입해 조립욕을 충족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레고 수집가를 위한 가이드북도 나와있다고 하니, 레고를 가지고 놀 때 디자인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

프라모델(Plamodel)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부품들을 접착제로 붙여 만드는 조립 모형이다. 프라모델 종류는 로봇과 군함, 자동차 등으로 다양하다. 설명서대로 조립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프라모델은 매우 정교한 작업을 요구한다. 프라모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손톱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손이나 칼로 분리해 접착제로 붙인 후, 필요에 따라서는 도색 작업도 해야 한다. 이 작업은 매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므로, 종종 내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생한 끝에 프라모델 하나를 완성하면 굉장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 키덜트들에게 인기가 많다.



프라모델을 살 때도 피규어에 입문할 때처럼 처음부터 복잡한 모델을 선택하기보다는, 단순한 입문용 모델을 선택해 경험치를 쌓는 것이 좋다. 레고와 프라모델 역시 마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조립을 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면 블로그나 SNS를 통해 도움을 받기 쉽다. 조금만 찾아봐도 '덕후'들이 공유해놓은 고급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다 큰 어른이 장난감을 수집하고 있으면 "유치하고 철없다"는 타박을 듣기 십상이었지만, 이제 당당하게 "전 장난감을 모아요!"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동안 수줍어서 말도 못한 채 혼자 장난감을 수집하고 조립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키덜트 문화를 즐겨보는 것이 어떨까. 최근에는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키덜트 축제가 개최되거나, 피규어뮤지엄, 돌리뮤지엄과 같이 키덜트를 겨냥한 전시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만약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있다면 그 만화의 '덕후 모임'에 참여해보자. 만화뿐 아니라 RC카를 조종하고, 로봇을 조립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도 있다. 소통이 사라진 이 시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어주는 '장난감'이라는 존재는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과 나를 이어주는 끈끈한 매개체가 되어줄 지 모른다. 키덜트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당당히 밝히고 같은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소통해보자. 하루하루가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박아름 기자 parkaahreum@gmail.com



▲ 피규어뮤지엄W에 있는 대형 '아이언맨' 모형과 '헐크' 벽화

## 지하철 타고 서울나들이

# 창신동, 그 미로 속에 숨겨진 흥터

우리학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창신동. 한번 정도는 소개하고 싶은 곳이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온 '서울나들이'의 분위기상 창신동은 아이টে이로 선뜻 고르기 어려운 장소였다. 기존에 탐방했던 장소들과 다르게, 창신동에 가면 즐겁다. 힐링할 수 있다' 정도의 말로 가볍게 써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구태여 창신동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이 동네에 스며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지금부터 '창신동 나들이'를 떠나보자.

2015년 박원순 시장이 '봉제산업 종합 발전계획안'을 발표한 후로, 창신동에는 봉제거리 박물관이 건립됐다. 많은 사람들이 봉제체험, 봉제거리 탐방을 위해 박물관을 찾는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봉제거리와는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창신 봉제거리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 주변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사람은 별로 없는데 묘하게 시골벽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쉬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과 살짝 열린 틈새로 들리는 재봉틀 소리 때문이다. 창신동은 의류산업의 메카인 동대문 지역과 맞닿아 있어 봉제업이 크게 발달해왔다.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관찰해보면 재봉틀 소리가 들려오는 근원이 곳곳에 있는 봉제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봉제공장 안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곳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신동 주민들이 '돌산밭'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수많은 주택과 봉제공장으로 인해 길이 미로처럼 되어있어, 이곳까지 찾아가는 것도 힘들 수 있다. 워낙 복잡한 곳이니 인근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서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가까스로 이 장소에 도착하면, 일반 주택가에서는 보기 드문, 위험해 보이면서도 신기한 풍경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깎아지른 절벽의 위와 아래에 늘어진 주택들의 모습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절벽의 위아래에 집을



▲ 창신동 골목길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돌산밭.

지를 생각을 했을까?

과거 이곳은 깎아지른듯한 절벽이 아니라 '돌산'이라는 명칭을 가진 바위산이었다. 돌산 근방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도당이 존재했다. 근방에 있는 안양암에는 지금도 암석을 파내어 감실을 만들고 부처님을 새긴 '석감마에관음보살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2호)'이 있다. 어떻게 보면 돌산은 우리 조상에게 있어서 신성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총독부, 경성역, 조선은행, 경성부청 등의

건물을 짓기 위해 창신동의 돌산에서 돌을 다량으로 채굴한 탓에, 절벽의 모습을 띄게 됐다. 이후 1960년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됐다.

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지나쳐온 창신동 골목.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골목길로 들어가보면, 그곳엔 당신이 몰랐던 창신동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 봉제거리에서 볼 수 있는 봉제관련 가게. 이러한 가게들이 도처에 널려있다.